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자 김지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하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이수정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허계형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협력관 전향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김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책임자 김지원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박하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지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이수정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교수)
허계형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연구협력관 전향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
김태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이 연구는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원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 등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요약	1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6
3. 연구 방법	8
II.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	13
1.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13
2. 기존 국내외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17
3. FGI 결과: 발달지연 영유아 양육자의 경험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	22
4.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향	25
III.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내용	30
1. 개발 방향	30
2.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32
3.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내용	37
4. 향후 배포 및 활용 계획	56
IV. 발달 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제언	60
1. 정책 및 제도적 제언	60
2. 본 프로그램 개발 관련 실천 제언	62
참고문헌	64
부록	69
1. (양육자용)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체)	70
2. (교사용 참고 자료)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체)	101
3. (냉장고에 척!)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체)	114



표 목차

〈표 Ⅰ-3-1〉 집단 심층면담 참여자 및 면담 내용	9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자 및 자문 내용	10
〈표 Ⅰ-3-3〉 연구 과정 보고회 개최 현황	11
〈표 Ⅱ-2-1〉 국내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18
〈표 Ⅱ-2-2〉 국외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21
〈표 Ⅲ-2-1〉 PDF 자료 개발 절차	33
〈표 Ⅲ-2-2〉 동영상 자료 개발 절차	34
〈표 Ⅲ-3-1〉 PDF 자료의 장별 내용 개요(양육자용)	38
〈표 Ⅲ-3-2〉 PDF 자료의 장별 내용 개요(교사용 참고자료)	40
〈표 Ⅲ-3-3〉 동영상 자료의 영상별 내용 개요(양육자용)	44
〈표 Ⅲ-3-4〉 동영상 자료의 영상별 내용 개요 (교사용 참고 자료)	44
〈표 Ⅲ-3-5〉 실시간 비대면 연수 내용 개요	47
〈표 Ⅲ-3-6〉 사전 질문 예시	50
〈표 Ⅲ-3-7〉 실시간 소통 및 질의응답 예시	55



그림 목차

[그림 Ⅰ-1-1] 연도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추적검사요망 및 심화평가권고 및 비율 추세	4
[그림 Ⅰ-1-2] 2023 발달지체 아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최초 선정 시기	5
[그림 Ⅰ-3-1] 연구 과정 보고회 개최 현황	12
[그림 Ⅲ-2-1] 비대면 연수 홍보물 및 사전 질의 접수화면	37
[그림 Ⅲ-3-1] 양육자용 PDF 내용	41
[그림 Ⅲ-3-2] 교사용 참고자료 PDF 내용	43
[그림 Ⅲ-3-3] 냉장고에 착! PDF 내용	43
[그림 Ⅲ-3-4] 동영상 섬네일 예시	45
[그림 Ⅲ-3-5] 촬영 현장 및 동영상 예시 사진	46
[그림 Ⅲ-3-6] 실시간 비대면 연수 송출 현장 (포항/서울)	48
[그림 Ⅲ-3-7] 실시간 시청자 수 캡처	49
[그림 Ⅲ-3-8] 실시간 연수 PPT 자료 예시	50
[그림 Ⅲ-4-1] PDF 자료가 탑재될 누리포털 화면	56
[그림 Ⅲ-4-2] 동영상 자료가 탑재될 누리포털 화면	58
[그림 Ⅲ-4-3] 비대면 연수 편집 녹화본이 탑재될 누리포털 화면	59

요약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는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리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이나 장애 진단 이전 단계에 놓여 있어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경험하기 쉽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추적검사 요망과 심화평가 권고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고령 출산과 조산, 디지털 매체 과다노출,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 등 발달 위험 요인이 확대되면서 조기 발견과 초기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양육자는 정보 부족과 불안, 부정적 정서 경험,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으로 개입 시기를 놓치고 있으며, 교사 역시 양육자와의 소통 부담과 실천 자료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육자와 교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실천형 부모교육 자료 개발이 필요해졌다.

본 연구는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양육지원을 돕기 위해 PDF 자료, 동영상 자료, 실시간 비대면 연수로 구성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PDF는 양육자용 자료, 교사용 참고 자료, 가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부착형 자료를 포함하며, 국내외 자료 분석, 양육자-교사 FGI, 학계·현장·의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료의 구조와 방향을 마련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든 영유아 가정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구성으로 제공되며, 발달 문제를 처음 인식한 양육자를 위한 입문형 안내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흐름, 일상 속 놀이와 상호작용 전략, 양육자 심리지원, 기관 연계 정보 등 실천적 내용을 친숙한 언어와 시각 자료로 구성하여 이해와 활용도를 높였다. 동영상 자료는 핵심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실시간 비대면 연수는 강의와 질의응답을 포함한 참여 기반 방식으로 운영되어, PDF와 동영상 자료의 핵심 내용을 실제 양육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양육자의 이해와 실천 동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모든 자료는 누리과정 포털(i-누리)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마련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지원을 특정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 양육자를 포용하는 보편적 부모교육 체계 안에서 조기 인식과 실천적 대응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양육자와 교사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마련하여 가정과 기

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디지털 기반 제공 방식은 프로그램 접근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으며, 향후 지역 부모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 확산이 기대된다. 본 프로그램은 양육자의 발달 이해와 조기 발견, 실천 역량 향상, 심리적 부담 완화, 가정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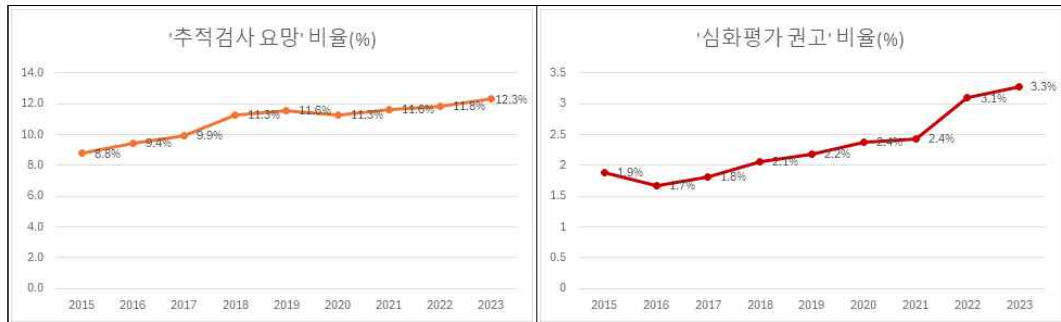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개념과 조기 지원의 필요성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등 발달선별검사
에서 신체,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발달 영역 중 일부 또는 전반에 걸쳐
또래보다 지연이 관찰되지만, 아직 장애 진단이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영유아를 의미함. 이들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등 주의 깊은
관찰과 추가 평가 필요한 집단으로 분류되며, 발달지연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에 해당함.
- 문헌에서는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발달이 느린 영유아’, ‘발달지연이 의심
되는 영유아’, ‘장애 위험 영유아’, ‘경계선 영유아’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
고 있으며(미디어생활, 2025.06.06.) 공식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 그러
나 여러 문헌이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은 진단 이전 단계에서 발달지연 가
능성이 있거나 추가 평가 또는 관찰이 필요한 영유아로서 동일함. 이에 본 연
구에서는 과제명에서 제시된 공식 용어인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를 일관되게
사용함.
- 영유아기는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발달 위험 신호를
놓치면 필요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 또한 장애 진단이나 특수교육대상자
지정 이전 단계에 있는 영유아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우므로,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체계 마련이 필요함.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증가 추세

-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비율은 2016년
8.8%에서 2023년 12.3%로, ‘심화평가 권고’ 비율은 1.9%에서 3.3%으로 증
가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그림 I-1-1] 연도별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추적검사 요망' 및 '심화평가 권고' 비율 추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 2015~202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증가의 구조적 배경과 환경적 요인

-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 시술에 따른 다태아 임신이 늘어나면서 조산아 출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출산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2024년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7세로 전년 대비 0.1세 상승하였고(통계청, 2025), 조산아 출생 비율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통계청, 2024). 출산 연령 증가와 짧은 재태기간은 영유아의 발달지연 발생률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됨(김성우 외, 2016; 윤신원 외, 2019).
- 또한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등은 언어 발달 지연 위험을 높이는 환경 요인으로 지적(이경숙 외, 2016; 조민수 외, 2017)되었는데, 유아동의 25.9%가 위험군(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이라고 조사됨. 특히 COVID-19 팬데믹 시기 의료기관 이용 제한과 사회적 단절은 조기 진단 및 지원의 공백을 초래하였으며(박범근 외, 2023), 이주배경 가정 영유아의 심화평가 권고율(2021년 3.9% → 2022년 6.3%)이 내국인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구조적 격차도 확대되고 있음(Wondmagegn et al., 2024; Zhang et al., 2018).
- 이처럼 출산 연령 상승, 조산 증가, 디지털 미디어 과의존 등 복합 요인이 발달지연 위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요인에 기반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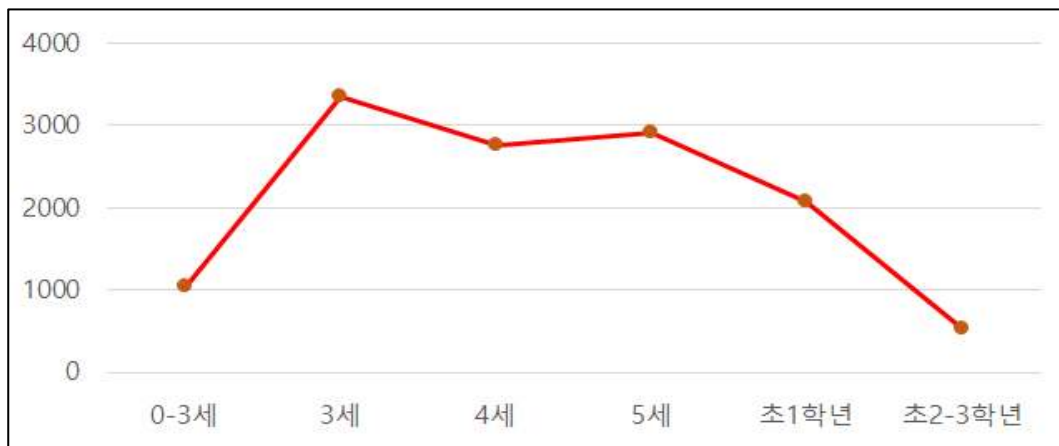
□ 조기 개입의 지연 실태

- 특수교육 실태조사(교육부, 2023)에 따르면, 발달지체 아동의 95%가 3세 이후에야 특수교육대상자로 최초 선정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아동이 0~2세

영아기에는 지원 체계에 연결되지 못한 채, 3세 이후에야 지원 체계 내로 편입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0~2세 영아기에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조기 발견과 개입이 발달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생애 초기 단계에서 발달지연 위험을 조기에 인식하고 개입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및 초기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함.

[그림 I-1-2] 2023 발달지체 아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최초 선정 시기



자료: 2023 특수교육 실태조사 결과(교육부, 2023).

주: 그래프의 x축은 연령대, y축은 인원수(명).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에 대한 지원 요구와 필요성

- 많은 양육자는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자녀 발달 문제에 대한 부정과 불안, 행동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백선정, 배성현, 최금순, 2020).
- 교사 또한 민감한 발달 문제에 대한 소통 부담과 체계적인 지원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최자영, 이순자, 2021).
- 이러한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양육자와 교사를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발달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양육자용 교육자료: 양육자가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지연 신호를 인식하며, 가정에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 ② 교사용 참고자료: 교사가 가정과 연계하여 양육자를 지원하고, 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 ③ 실시간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 양육자가 공간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온라인 연수.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료는 양육자와 교사가 함께 활용함으로써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양육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특히 발달지연 신호의 이해, 적절한 도움 요청 방법, 가정 내 실천 가능한 양육 전략, 공신력 있는 정보 찾는 방법 등 현실적이고 접근성 높은 내용 구성을 통해, 조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양육자용)

□ 목적

- 발달지연 위험이 있는 영유아의 양육자가 자녀의 발달을 조기에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양육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구성

○ PDF 자료: 총 16장

- 조기발견(4장), 양육지원(9장), 정보탐색(3장)
- 각 장당 7~10쪽 분량
- 발달 지연 신호 이해, 일상 속 상호작용 전략, 공신력 있는 정보 탐색 등 실천 중심 내용으로 구성함.

○ 동영상 자료: 총 8편

- 조기발견(2편), 양육지원(5편), 양육자의 심리 지원(1편)
- 편당 10분 이내
- PDF 자료의 주요 내용을 시각적 사례,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해도를 높임.

□ 활용

- 개발된 PDF와 영상 자료는 누리과정 포털(누리포털)에 탑재하여 상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함.

※ 세부 게시판 경로 및 상세 배포 계획은 III장에서 제시

나. 교사용 참고자료 개발

□ 목적

- 교사가 양육자에게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기관-가정 간 협력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을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음.

□ 구성

○ PDF 자료: 총 2장

- 조기발견(1장), 양육지원(1장)
- 각 7쪽 내외 분량
- 양육자용 자료 중 교사에게 필요한 핵심 내용을 교사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가정과의 연계 및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동영상 자료: 총 2편

- 조기발견(1편), 양육지원(1편)
- 편당 15분 이내, 전체 30분 이내
- 교사 관점에서 실제 부모교육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 활용

- 교사용 참고 자료(PDF, 영상 자료) 역시 누리포털에 탑재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도록 설계함.

※ 세부 게시판 경로 및 상세 배포 계획은 III장에서 제시

다. 실시간 비대면 연수 실시(양육자 대상)

□ 목적

- 영유아 양육자의 발달 이해 및 발달 선별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령별 놀이와 일상생활 속 상호작용 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실천 중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대상: 전국의 모든 영유아 양육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함.

□ 구성 및 운영 방식:

- 양육자용 PDF 및 동영상 자료의 주요 영역인 ‘조기발견’과 ‘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총 2회 실시간 비대면 연수를 운영함.
- 연수 홍보와 함께 사전 질문을 수집·분석하여 강의 구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육자의 실제 고민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참여형 연수로 설계함.
- 실시간 참여 및 질의응답을 병행하여 쌍방향 소통 기반의 연수 환경을 조성함.
- 유튜브 실시간 송출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함.

□ 후속 활용

- 실시간 연수 영상은 편집 후 누리포털 부모배움터(LMS)게시하도록 계획함.
※ 세부 게시판 경로 및 상세 배포 계획은 III장에서 제시

3. 연구 방법

가. 문헌분석

- 목적: 국내·외에서 개발된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함.

□ 방법: 기존 개발된 국내외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분석

- 국내 중앙부처,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지원 자료 조사 및 분석
- 해외 주요 국가의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조사 및 분석

나. 수요자 집단 심층면담(FGI)

□ 목적: 발달지연 영유아 양육자와 교사의 실제 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에 반영하기 위함.

□ 대상

- 양육자 집단: 발달지연 영유아를 현재 또는 과거에 양육한 양육자 5인
- 교사 집단: 유치원 교사 2인, 어린이집 교사 3인
- 참여자 구성 시 고려 사항
 -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치 여부에 따라 다양한 기관 유형의 교사를 포함함.
 -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여부를 고려하여 이수자·비이수자 모두 포함함.
 - 기관 유형과 특성을 다양하게 반영함(예: 국공립·사립 유치원, 영아 전담 및 유아반 운영 어린이집, 이주배경 영유아 다수 재원 중인 기관 등).

〈표 I-3-1〉 집단 심층면담 참여자 및 면담 내용

일시	면담 참여자	내용
2025.5.08	부모 부모 A - 현재 발달지연 위험 30개월 영아 양육 중 부모 B - 과거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 경험 - 현재 초1 자녀(발달장애 진단) 부모 C - 과거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 경험 - 현재 초1 자녀(정상 발달) 부모 D - 과거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 경험 - 현재 중1 자녀(정상 발달) 부모 E - 과거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 경험 - 현재 초2 자녀(발달지연 진단 후 일 반학교 재학 중)	• 자녀의 발달 상태에 대한 인식과 이해 • 발달지연 징후 발견 시 경험한 어려움 • 조기 개입 및 양육지원에 대한 요구 • 자료 구성 및 형식에 대한 의견 수렴
2025.5.09	교사 교사 1(S유치원, 공립병설) 교사 2(T어린이집, 직장) - 기업 자체지원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에 대한 상담 경험

일시	면담 참여자		내용
		교사 3(D유치원, 사립법인) - 일반교사 교사 4(G어린이집, 민간) - 이주배경 영유아多 교사 5(D어린이집, 가정) - 영아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 조기발견과 관련된 교육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요구 • 자료 구성 및 형식에 대한 의견 수렴

다. 전문가 자문

□ 목적: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과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의 설계 방향과 핵심 내용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상: 학계 전문가 2인, 현장 전문가 3인, 의료계 전문가 3인

○ 참여자 구성 시 고려 사항

- 학계 전문가: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현장 지원 또는 임상 치료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함.
- 현장 전문가: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통합어린이집 등 다양한 기관 유형의 원장으로 구성하여 현장 맥락과 운영 경험의 다양성을 반영함.
- 의료계 전문가: 발달지연 관련 진료 및 상담 경험이 풍부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구성하여 조기 발견과 진단, 양육자 안내 방식 등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함.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참여자 및 자문 내용

일시	면담 참여자		내용
2025.5.12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전문가 A (S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B (G구육아종합지원 센터장, C대부설평생교육원 교수) 전문가 C (공립단설유치원 원장) 전문가 D (H시청 영유아보육과 보육정책전문관, 前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E (G놀이연구소장, 前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이 구성한 16개 주제 초안을 중심으로 조기 발견, 양육지원, 정보 탐색의 핵심 내용 검토 • 양육자의 실천 중심 프로그램 구성 방안 및 일상 적용 가능성 논의 • 교사-양육자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방향 자문 • 프로그램 대상, 활용 주체, 전달 방식 등 프로그램 운영의 방향성 검토

일시	면담 참여자		내용
2025.5.15	의료계 전문가 ^{주)}	전문가 F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전문가 G (B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전문가 H (C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진이 구성한 16개 주제 초안을 중심으로 초기 발견, 양육지원, 정보탐색의 핵심 내용 검토 프로그램 구성 방향과 전달 방식 논의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 및 도구 검토 양육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한 정보 제공 방향 자문 의료 용어 이해도와 설명 방식에 대해 의견 수렴

주: 발달지연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라. 연구 과정 보고회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교육부 및 대전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연구 과정 보고회를 통해 사업 추진 현황과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연구 방향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조율하였음. 보고회에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음.

〈표 I-3-3〉 연구 과정 보고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자	참석자	안건
1차	2025.4.28	대전시교육청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향성에 대한 사업 계획 보고 및 논의
2차	2025.7.14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집중 검토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의견 수렴
3차	2025.8.22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연구진 특교사업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청별 영유아 보호자 교육 관련 현안 논의 위탁 연구 중간보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4차	2025.11.18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연구진 특교사업 연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교육청별 영유아 보호자 교육 관련 현안 논의 위탁 연구 최종보고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의견 수렴
5차	2025.11.28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료보고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의견 수렴

[그림 I-3-1] 연구 과정 보고회 개최 현황



마.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자료 개발 기획 및 수행

- 교육부 및 대전광역시교육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용 및 교사용 부모교육 프로그램(PDF·동영상·실시간 비대면 연수) 개발을 기획하고 전 과정을 수행
- 연구진 내부 논의와 검토를 통해 콘텐츠의 주제 구성, 세부 내용, 형식, 전달 방식 등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 자료의 수용성과 현장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초안에 대해 부모, 현장교직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검토를 실시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 보완에 반영
- 최종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 자료의 시각자료 구성, 교정 및 편집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II.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배경

1.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선행연구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조기 지원은 생애 초기 발달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가정에서의 일상적 돌봄과 상호작용이 조기 개입의 출발점이 되어야 함. 특히 양육자는 발달 변화를 가장 먼저 관찰하고, 발달지연의 신호를 인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첫 번째 조기 발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육자는 자녀의 발달 문제를 인식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부담, 제도 접근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기 개입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남.

가.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자가 겪는 어려움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자녀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하는 주체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부담, 정보 접근의 한계, 지원체계의 제약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함. 이러한 요인은 결과적으로 조기 발견과 개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정서적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

- 발달지연 유아의 부모는 일반 유아 부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자녀의 부적응 행동을 더 빈번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Lopez et al., 2008).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발달지연 영유아의 부모에게 필요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 및 맞춤형 지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내 연구에서도 발달지연 영유아의 어머니는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고, 이로

인해 방임적 양육(25%), 양육지식·기술 부족(19%), 디지털 과다노출(19%) 등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함(이경숙 외, 2016).

- 자녀가 발달 지연 진단을 받는 순간, 부모는 자책감, 불안감, 절망감 등 부정적 심리 경험을 하며, 이로 인해 조기 개입 서비스를 알고도 즉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정효운, 김정민, 서현아, 2025; 조윤경, 2013). 이는 심리적 요인이 조기 개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줌.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사례 접근의 어려움

- 발달 지연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지만, 양육자가 참고할 수 있는 유사 사례나 정보를 찾기가 어려움. 발달 지연 영아 어머니들이 온라인, 서적, 지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지만 자녀와 유사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결과 혼자 판단하거나 비전문가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가 있음(곽희연 외, 2022; 김경민, 2020; 이지경, 서보순, 2021).
- 이러한 정보 접근의 한계는 부모가 발달 신호를 놓치거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짐.

○ 지원 체계 접근의 제약

- 부모교육·상담과 같은 지원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도 참여의 어려움이 존재함. 일부 부모는 자녀의 발달 문제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치료 중심 개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김진숙, 2015).
-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 시에도 3개월 이상 길게 대기해야 한다면 프로그램 신청하는 기간이 짧거나 인원 제한이 있거나, 운영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참여가 제한되는 사례가 보고됨(유정현, 정가운, 서민경, 2019). 이러한 현실적 제약은 조기 개입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됨.

□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조기 개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발달을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양육 전략을 학습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김혜영, 이성봉, 2018).

나.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 관련 주요 논의

- 선행연구들은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육자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기함. 과거에는 장애 진단 이후의 치료 중심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진단 이전 단계에서 양육자가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양육 실천을 통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 중심의 조기 개입 접근이 강조됨(곽희연, 김숙향, 이병인, 2022; 이지경, 서보순, 2021).

○ 가정 내 실천 중심 접근

- 최근 연구들은 발달지연 위험이 있는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개입에서 치료실 중심의 개입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가정에서의 일상적 실천이 핵심임을 강조함(곽희연 외, 2022; 이지경, 서보순, 2021).
- 3세 이하 장애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필요한 지원의 1순위가 '부모의 적절한 양육지원'으로 나타나 양육자 중심의 가정 내 개입의 중요성이 확인됨(조운경, 2013).
- 이에 따라 양육자가 일상 속에서 자녀의 발달 신호를 관찰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 기반 자기점검 교육과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발달지원 활동을 제공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함(Choo et al., 2019).
- 발달지연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조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양육자가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일상적 실천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지원이 요구됨(조운경, 2013).

○ 양육자의 요구와 인식

- 양육자는 자녀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장 필요로 함(김경민, 2020).
- 전문가의 조언이 포함된 전문성 기반의 프로그램과 자녀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을 선호함(김진숙, 2015; 정효운 외, 2025).
- 특히 많은 양육자는 영유아기부터 발달 선별과 조기 진단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정보 부족이 늦은 개입과 불안한 예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함(정효운 외, 2025).
-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선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김진숙, 2015).

- 프로그램의 접근성(대기 기간, 운영 시간, 참여 방식), 전문성, 정보의 신뢰성이 부모교육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유정현 외, 2019).
- 양육자는 발달지연이 학습 능력 뿐 아니라 생활습관, 자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며, 배변 훈련, 식기 사용, 씻기 등 일상 중심의 지도법을 배우기를 원함(김경민, 2020; 백지은, 이숙정, 2023).
- 따라서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자녀 발달 이해-일상 실천-전문 연계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교사의 인식과 가정 연계의 요구

- 교사들은 조기개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양육자의 이해, 수용, 협력적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나, 현실적으로 양육자와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음(김형진, 이대균, 2021; 박부숙 외, 2022).
- 양육자가 자녀의 발달 문제를 부정하거나 교사의 설명에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조기 개입이 지연되기도 함.
- 일부 교사들은 부모의 불신, 민원, 퇴소 요구 등 이중 부담을 경험함.
- 양육자의 심리적 불안정성, 치료 의존, 정보 부족 등이 개입 효과를 약화시키며, 부모교육의 선행 필요성이 제기됨(조윤경, 2012; 조윤경 외, 2017).
- 교사들은 쉬운 언어와 사례 중심 프로그램, 양육자와 함께 볼 수 있는 연계된 콘텐츠, 지속적 전문가 자문 체계를 요구하며, 부모교육이 가정과 기관을 잇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함(조명희, 김효정, 2021).

○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전략

- 양육자가 발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녀의 발달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안내함(Choo et al., 2019).
- 발달지연의 의미와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경미한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발달을 돕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정 기간 후 재검사를 권장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 양육자가 자녀의 발달지연을 수용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진단명보다 일상생활

의 기능적 어려움을 중심으로 설명함. (예: 소근육 운동 영역에서의 발달지연을 설명할 때, 젓가락 사용이나 단추 잠그기 등 구체적인 자조 기술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임)

- 이른둥이, 만성질환 등 고위험 요인을 지닌 영유아의 경우, 조기 개입 기준을 낮추고 중복 위험 요인에 따른 서비스 연계 경로를 사전에 안내함.

○ 양육자 대상 확대의 필요성

- 최근 가족 구조 변화와 조부모, 친지 등 비부모 양육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모교육 자료의 대상을 ‘부모’에 한정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양육자 전체를 포괄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 대신 ‘양육자’라는 용어를 사용함.

2. 기존 국내외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가. 국내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 국내의 부모 지원 자료는 장애 영유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발달 지연 위험 영유아를 포함하여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 또한 영상이나 PDF 등 디지털 기반 자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2023년에 개발된 ‘러닝메이트’ 시리즈는 영유아의 발달 속도에 맞춘 부모용 안내자료로, 교사용 자료와 연계되어 가정과 기관이 일관된 방식으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됨.
-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조기 발견과 가정 내 지원 전략, 장애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부모교육 자료임.
- ‘온맘TV’는 조기 중재 및 장애 영아 학급 관련 강의를 5~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구성하여, 양육자가 부담 없이 핵심 내용을 학습할 수 있게 함.
-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나요?’ 영상 시리즈는 한국 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의 필요성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함. 유튜브로 접근이 가능함.

- 이외에도 ‘발달가이드북’, ‘긍정적 행동지원 가이드북’ 등 자녀의 발달 이해, 점검, 가정 내 실천을 지원하는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

〈표 II-2-1〉 국내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자료명	자료내용	전달방식	개발주체	발행일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안내자료: 아이의 발달속도에 맞춘 러닝메이트 ¹⁾	-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의 부모를 위해 심리정서 지원 및 가정에서의 놀이와 생활에서의 양육기술을 제공 - 자녀의 발달 이해 및 지원하기, 부모 효능감 키우기, 전문가 Q&A, 기관정보 등 포함	인쇄본,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육아정책연구소	2023. 12.
K-SIED: 부모용 영유아 발달체크도구 ²⁾	- 부모가 자녀의 연령(12개월~5세)에 따라 발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체크리스트 - 연령별 항목 구성과 사용안내서 포함,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인쇄본,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육아정책연구소	2024. 12.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 ³⁾	-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를 위한 조기발견·개입, 가정 내 지도전략, 교육기관 선택, 장애등록 절차 등 종합 안내 - 부모 역할 이해, 스트레스 대처, 사례 Q&A 포함	인쇄본,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020. 12.
양육 길라잡이(생애주기별 가이드북) ⁴⁾	- 발달장애 자녀를 둔 영유아기 부모 대상 가이드북 시리즈 - 양육지식·기술, 가족지원, 시각/청각/지체장애 등 총 6종 - 초기 수용, 발달이해, 실천적 양육 전략 중심 https://www.nise.go.kr/onmam/front/index.do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국립특수교육원	2016. 11.
온맘TV ⁵⁾	- 조기 중재, 장애영아학급, 학부모 자조모임 등 장애 자녀 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 2024년 신규 콘텐츠 기준 5~10분 내외의 설명형 교육 영상	영상형 디지털 콘텐츠 (강의영상)	국립특수교육원	2024.
팁! 톡! 행복한 우리 가족 긍정적 행동지원 가이드북 ⁶⁾	- 생애주기별(영유아기~성인기) 자녀 양육 기술 및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 안내(예방-교수-강화(PTR) 모델, 감각 이해, 의사소통 지도 등)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국립특수교육원	2022. 11.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가이드북 ‘우리 아이 발달이 걱정이에요?’ ⁷⁾	- 0~3세 영유아 발달 이해와 연령별 체크리스트, 놀이 팁 등 정보 제공 - 발달지연 우려 시 부모를 위한 지역 의료·교육·재활 지원정보 안내 https://www.woorii114.org/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 (PDF, e-book)	우리아이 발달지원단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022. 04.

자료명	자료내용	전달방식	개발주체	발행일
미니강연 전시회 '우리아이 잘 크고 있나요?' ⁸⁾	- 발달지연 영유아의 언어발달 및 상호작용 특성 - 일상생활 속 발달 촉진 및 지도 방법 안내	영상형 디지털 콘텐츠 (강의영상)	우리아이 발달지원단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2024. 12.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 ⁹⁾	- 부모와 교사 대상, CDC 기반 만 0~5세 영유아 연령별 발달영역(사회성, 언어, 인지 등) 체크리스트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 (PDF, e-book)	우리아이 발달지원단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2016. 10.
발달지연 영유아 국가지원 종합안내서 ¹⁰⁾	-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건강·양육·교육·돌봄 관련 국가 서비스 안내 - 부모상담, 온라인 콘텐츠, 보육료·의료비·검사비 등에 대한 지원정보 포함	인쇄본,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국민건강 보험공단	2024. 10.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나요? 영유아 발달검사 1부, 2부 ¹¹⁾	- K-DST(한국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에 대한 안내 영상 - 부모 대상 발달검사의 필요성, 절차, 조기개입의 중요성 설명	영상형 디지털 콘텐츠	중앙육아 종합지원 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2023. 11.
발달놀이터 ¹²⁾	- 발달선별검사 결과 '관찰이 필요한 발달' 유아의 부모 대상 프로그램 - 사전 온라인 부모교육(영상)과 4회기 오프라인 놀이활동으로 구성 - 부모 역할, 애착, 감각놀이, 자기조절, 협응 등의 주제 운영	영상형 디지털 콘텐츠 (사전교육) + 대면 활동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서울특별시)	진행중
영아발달·장애 관련 전자도서 ¹³⁾	- 「우리 아기 뭐하니?», 「이른둥이 다이러리», 「뇌성마비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건 길라잡이」 - 조기개입 전문가들이 집필한 장애위험 또는 발달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 대상의 실천형 안내자료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사단법인 한국영아 발달조기 개입협회	-
영아발달·장애 관련 영상자료 ¹⁴⁾	- 「아이의 시력 사시와 약시», 「영아연축 진단과 치료에 대한 궁금증», 「자폐 자녀 양육의 지혜」 등 - 장애위험 또는 발달지원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 대상	영상형 디지털 콘텐츠	사단법인 한국영아 발달조기 개입협회	-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례 모음 ¹⁵⁾	-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 요구를 가진 영유아 지원 사례집 - 실제 사례 기반의 교사 대응 전략과 가정 연계 방안을 함께 제시	인쇄본,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교육부, 한국보육 진흥원	2024. 12.

나. 국외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일찍 부모 지원 자료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발달 이해-조기 발견-가정 실천-전문 연계의 흐름이 명확히 구조화되어 있음. 반면, 방대한 문서형 콘텐츠 위주라 접근성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음.

- 영국의 Just One Norfolk는 영국의 Norfolk지역 보건소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자료로, 발달지연의 정의, 선별검사 도구 안내, 진단 전후 단계별 부모 행동 지침 안내를 포함하며, 웹 기반 문서와 영상형 콘텐츠를 포함함.
- 호주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는 Developmental delay: Parent easy guide 등에서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 대처법, 지역 서비스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호주의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자료는 발달 이해, 전문가 협업, 가족 내 정서적 지원, 일상 실천 전략을 포함해, 이후 가정 중심 개입 프로그램의 모델로 활용되고 있음.

-
- 1) 김은설 외. (202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 2) 강은진 외. (2024).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I): 장애위험 영유아 선별도구 표준화 및 지원모델 개발.
 - 3) 한국보육진흥원. (2020).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사업).
 - 4) 국립특수교육원. (2016). 양육 길라잡이: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
 - 5) Children and Young People's Health Services. Finding your way- Developmental Delay. Retrieved from <https://www.nise.go.kr/onmam/front/M0000172/media/list.do>
 - 6) 김나경 외. (2022). 팁! 톡! 행복한 우리 가족 긍정적 행동지원 가이드북.
 - 7)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22).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가이드북: 우리 아이 발달이 걱정하세요?
 - 8)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24). 제1전시실-언어발달. Retrieved from https://www.woorii114.org/SW_bbs/gallery/list.php?zipEncode=edEL91vt1drjrMCH9MyMetpSfMvWLME, 2025. 11.06 접속.
 - 9)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16).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
 - 10)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발달지연 영유아 국가지원 종합안내서.
 - 1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3).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나요?' 영유아 발달검사 1부.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NiDk2Dl6HVA>, 2025. 11.06 접속.
 - 12)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누리집. 발달놀이터. Retrieved from https://www.seoul-i.kr/program_play.jsp, 2025. 11.06 접속.
 - 13)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0-12개월 아기를 위한 조기개입 육아 참고서: 우리 아기 뭐하니? Retrieved from <https://kici.or.kr/product/%ec%9a%b0%eb%a6%ac-%ec%95%84%ea%b8%b0-%eb%ad%90%ed%95%98%eb%8b%88/>, 2025. 11.06 접속.
 - 14)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누리집. Retrieved from <https://kici.or.kr/%ed%82%a4%ec%a6%88-%ed%8c%9f/%ec%9e%a5%ec%95%a0%ea%b4%80%eb%a0%a8-%ec%a0%95%eb%b3%b4/>, 2025. 11.06 접속.
 - 15) 심소라 외. (2024).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례 모음.

〈표 II-2-2〉 국외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지원 자료

자료명	자료내용	전달방식	개발주체	발행일
Finding Your Way – Developmental Delay 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의 정의, 발달 선별검사 도구(ASQ, SoGS), 진단 전후 단계별 부모 안내 - 양육자를 위한 영상자료 페이지 (ND digital library)로 연결 가능 	웹 기반, 영상형 디지털 콘텐츠(강의 영상)	Just One Norfolk (NHS Norfolk Community Health and Care)	-
Developmental Delay: Information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의 정의, 주요 발달 영역 및 이정표, 진단과정, 다양한 전문가의 역할, 부모 행동지침, 부모 경험담, 실용적인 대처 전략 안내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Contact (Contact a Family, UK)	2018.6.
Developmental Delay – Parent Easy Guide ¹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의 정의, 원인,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 안내 - 자녀의 발달을 돕기 위한 실천적 행동 지침, 감정적 대처법, 지역 서비스 정보 포함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20.3.
Developmental delay or disability (child)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 또는 장애 아동 부모를 위한 관리 및 지원 안내 - 조기개입, 접근 방법, 가정 내 지원, 지역 서비스 연계 내용 포함 	웹 기반 디지털 콘텐츠 (공식 보건 매뉴얼 웹페이지)	퀸즐랜드 보건부 (Queensland Health, Australia)	-
Developmental delay: An information guide for parents ²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의 개념, 자녀의 행동 이해, 조기개입 전문가와의 협업, 가족 내 정서적 대응 방안 등 실용적인 부모 안내 정보 포함 	문서형 디지털 콘텐츠(PDF)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2009.

16) Children and Young People's Health Services. Finding your way- Developmental Delay. Retrieved from <https://www.nise.go.kr/onmam/front/M0000172/media/list.do><https://www.justonenorfolk.nhs.uk/child-development-additional-needs/additional-needs/finding-your-way-developmental-delay/>, 2025. 11.06 접속.

17) Contact. (2018). Developmental delay: Information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18)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20). Developmental delay: Parent easy guide.

19) Queensland Government. (2024). Developmental delay or disability (child). <https://www.ccm.health.qld.gov.au/management-of-diagnosed-conditions/developmental-delay-or-disability-child>. Retrieved from <https://www.ccm.health.qld.gov.au/management-of-diagnosed-conditions/developmental-delay-or-disability-child>, 2025.11.06. 접속.

20)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2009). Developmental delay: An information guide for parents. Retrieved from <https://makiingsenseoftrauma.com/wp-content/uploads/2016/04/Developmental-Delay-an-Information-Guide-for-Parents.pdf>, 2025. 11.06 접속.

3. FGI 결과: 발달지연 영유아 양육자의 경험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요구

- 발달지연 영유아 양육자의 실제 양육 경험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양육자 5인과 발달지연 영유아를 담당한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5명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FGI)를 실시함.
 - 양육자 참여자는 자녀가 정상 발달로 이어진 경우,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여전히 발달지연 징후로 어려움을 겪으나 경계선에 속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발달 경로를 대표하도록 구성하였음.
 - 교사 참여자는 기관 유형(국공립·사립 유치원, 영아반·유아반 어린이집),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배치 여부, 이주배경 영유아 비율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해 섭외함.
- FGI 결과, 양육자의 경험과 인식, 프로그램에 포함되길 바라는 내용, 구성 방식에 대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발달지연 영유아 양육자의 발달 인식 및 조기 개입 경험

- 발달 문제 인식 계기는 또래와의 비교, 교사의 피드백, 형제자매 경험, 영유아 건강검진의 발달선별검사 결과 등으로 다양함.
- 조기 개입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보 부족, 가족의 반대, ‘발달의 개인차 일뿐’이라는 주변 인식, 의료기관의 소극적 진단, 재활 기관 대기 문제 등이 제시됨.
- 첫째아의 경우 발달 비교 기준이 부족하여 인식과 개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음.
- 초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 지식인 등) 등 비공식 경로에 의존했으며, 공신력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음.
- 진단 이후에도 치료 방법, 기관 정보, 지역별 서비스 정보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양육자들이 혼란을 경험함.

- 발달지연 영유아 시기를 지나고 긍정적으로 성장한 사례에 대한 소개가 양육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실천 동기를 줄 수 있다는 요구가 있었음.

나. 발달지연 영유아 양육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 용어 및 표현의 민감성

- ‘발달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등의 진단 관련 용어는 진단 전 양육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중립적이고 공감적인 언어 사용이 필요함.
- 전문 용어나 이론에 등장하는 언어보다는 공감되는 일상적 언어 사용이 심리적 장벽을 낮춤.

○ 조기 발견 및 대응 정보 강화

- 발달 의심 징후, 연령별 관찰 포인트, 검사 이후의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함.
- 조기 개입의 효과를 강조하고, 검사 결과별 대응 방법에 대한 실천 지침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각자료나 흐름도 형태의 구성을 선호함.

○ 가정 내 실천 중심 구성

- 가정에서 따라하기 쉬운 일상생활 속 발달 지원 전략, 쉽고 간단한 놀이 상호작용, 양육자-자녀 대화법, 도전행동 대처법 등 실천 가능한 양육 실천의 풍부한 예시가 포함되면 좋겠음.
- 애착이나 양육 태도 유형 등 양육자가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쉽고 간단한 성찰 도구가 포함되면 좋겠음.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경우 양육자가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하는 법을 모르거나 미디어 과잉 노출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히 훈육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양육자-자녀 대화법의 구체적인 예시, 미디어 노출에 대한 경각심, 도전행동 대처법 등을 제시하면 좋겠음.
- 취학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학 전 아이가 스스로 해 보는 연습을 돕는 방법이 포함되기를 희망함.
- 양육자의 노력에 따라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발달이 향상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긍정적 관점이 제시될 때, 비로소 양육자가 가정 내 실천으로 이어갈 동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음.

○ 양육자의 심리 지원 강화

- 자녀의 발달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양육자는 정서적 혼란과 우울감, 죄책감 등 부정적 심리를 경험함. 따라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콘텐츠가 필요함.
- 단순 위로나 조언이 아닌, 양육자의 심리 상태에 대한 공감, 수용, 자기 돌봄, 회복의 과정을 돕는 실질적 지원과 언어 제시가 필요함.
- 위로와 동시에 실천 동기를 부여하는 균형 잡힌 서술 방식이 필요함.

○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발달지연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기관 간 차이, 지역별 지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을 요구함.
- 초등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지원 방식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이 설명되면 좋겠음.
- 바우처, 진단코드, 보험 적용 등 행정, 비용 지원 정보를 제공하면 유용함.
- 정보가 과잉된 환경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선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제시해야 함.

○ 교사-가정 연계 강화를 위한 교사용 자료에 대한 요구

- 교사용 자료는 부모용 자료의 구조와 연계성을 갖되, 요약·설명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되기를 희망함.
- 교사가 양육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정보 전달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함. 따라서 교사용 참고자료는 교사의 역할 수행을 도와줄 수 있는 ‘전달 가이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교사용 참고자료에는 자조나 사회성 등 기관에서 파악 가능한 발달 영역을 중심으로 기관 내에서 발달 지연 징후 관찰하는 방법을 포함하면 좋겠음. 교사도 발달지연으로 판단 가능한 지점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연령별 핵심 발달 및 지연 징후를 정리해서 제공하면 좋겠음.
- 교사와 양육자 간 상황별 대화 예시, 표현 가이드 등 아이의 발달 문제로 소통하는 상황별 대화법을 제시하기를 희망함.
- 발달 문제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에게 자료를 어떻게 건넬 것인가에 대한 표현 예시, 건네는 시점과 맥락 등을 포함한 소통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음.

- 양육자와 교사가 서로를 “함께 고민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 필요함.

○ 이해를 돕는 시각적·실천형 구성 선호

- 사례 중심의 짧고 쉬운 문장과 공감 가능한 언어, 4컷 만화나 영상 등 가독성과 몰입도를 높이는 시각적 형식을 선호함.
- QR코드, 인터뷰 영상 등과 연계한 멀티미디어형 구성을 통해 심화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함.
- 양육자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와 실천 중심의 구성 방식을 선호함.
- 동영상 자료는 의료나 육아 전문가, 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사와의 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면 좋겠음.
- 쉬운 제목과 흥미로운 구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됨.

4.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향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발달지연 전공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자문회의를 실시함.

- 자문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목적 설명, 용어 및 접근 방식, 구성 체계, 양육지원 내용, 정보 연계, 교사용 자료, 시각적 형식과 확산 전략 등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의견이 제시됨.
- 두 집단 모두 가정 내 양육 지원이 발달 지원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양육자의 심리적 지지를 기반으로 실천 중심 자료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임.
- 다만 교육·보육 전문가는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활용성과 전달 구조를 강조한 반면, 의료 전문가는 선별 검사 이후 단계에서의 현실적 연계와 지원 체계 안내를 중점적으로 제안함.

가.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

○ 자료의 기본 방향 및 대상 설정

-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개입을 망설이는 양육자를 위한 입문형 자료로 설계하되, 일반 발달 아동의 양육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구성을 권장함.
- 현장보급 시 보편적 구성일수록 부담이 적고 활용도가 높음.
- 교사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하고, 교사-양육자 간 연계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선택 및 접근 방식

- ‘지연’, ‘위험’, ‘선별’, ‘개입’ 등의 용어는 발달 문제를 처음 인식한 양육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적 용어보다 유아교육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일반 교사 또한 발달지연 영유아를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아이”로 인식하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함.

○ 양육지원 및 실천 구성 방향

- 양육자가 놀이 중심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팁을 통해 자녀의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 애착과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상 대화법, 놀이·관찰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형제자매 양육, 교사-양육자 간 협력, 진단 이후 대처 등 양육자의 실제 궁금증에 대응하는 정보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정보 관련 의견

- 자녀의 발달 문제로 전문기관 또는 통합기관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부모가 많으므로, 현실적인 여건과 또래 관계를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안내가 필요함. 다양한 기관을 소개하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소속 기관 내에서도 충분히 발달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는 것을 권장함.

○ 교사용 참고자료 구성

- 교사가 양육자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소통 가이드 및 대화 예시를 포함해야 함.
- 관찰 근거 중심의 피드백 요령, 협력 일지, 상담 기록 등 공유 가능한 협력 서식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임.

○ 자료 형식 및 구조

- 글밥을 최소화하고 시각자료(4컷 만화, 흐름도 등)를 강화해야 함.
- 조기발견에서 양육지원으로 이어지는 고정 순서 대신, 양육자의 관심과 상황에 따라 자유 탐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QR 코드 연동 영상 등 멀티미디어형 구성으로 접근성과 흥미를 높일 것을 제안함.

○ 전달 및 확산 전략

- 모바일 친화적 형식(카드뉴스, 숏폼 영상, 앱 등)을 통해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고, 어린이집·유치원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지역 기관과 연계 배포하는 방안을 권장함.
- 2~3쪽 분량의 요약 홍보본을 별도 제작하여 관심을 유도한 후, 본 자료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을 제안함.

나. 발달지연 전공 의료 전문가 자문 결과

○ 접근성과 활용성

-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관련 자료가 제작·배포되고 있으나, 인지도와 접근성이 낮아 실제 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 의료 현장에서도 손쉽게 배포 가능한 간단하고 요약형 자료로 개발할 것을 권장함.
- 단순히 콘텐츠 개발 자체보다 홍보 강화와 용이한 접근 경로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구성체계 및 내용 구조

- 정상 발달 → 지연 신호 → 대응 방안의 3단 구성은 양육자가 이해하기 쉽고, 실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음.

- 연령별, 발달 영역별 핵심 발달 포인트를 간단히 요약하되, 선별 도구 중심의 과도한 설명은 지양해야 함.
- 구성 방식은 연령별(0~5세) 혹은 증상 중심(예: 걷지 않음, 말이 늦음 등) 중, 양육자에게 직관적으로 와닿는 방식을 선택할 것을 제안함.

○ 조기 발견 및 선별 검사 해석

- 발달선별검사에서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등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해설해야 함.

○ 정밀 검사 및 기관 연계 정보 제공

- 선별 검사 이후 단계별 흐름도(발달선별검사 → 전문의뢰 → 정밀검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사례와 연계할 것을 권장함.
- 검사 도구 예시: 베일리 검사(42개월 미만), 웨슬러(42개월 이상), PRES(언어), ADOS/APIR(자폐), CAT(주의력), K-SIED(일상 기반) 등
- 양육자가 직접 관련 기관이나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검색 방법, 학회 홈페이지 링크 등 실제 정보 경로를 포함해야 함.
- 발달 영역별 치료(예: 언어→언어촉진교육, 운동→감각통합치료 등)도 안내하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도 강조해야 함.

○ 가정 내 양육 지원

- 진단이나 치료가 진행 중이라도, 가정 내에서 양육 지원 실천을 병행해야 함. (예: 언어 발달을 위한 문장 모델링, 운동 발달을 위한 트램폴린이나 공놀이 등의 대근육 활동, 눈맞춤, 반응적 대화, 아버지 참여 등의 상호작용)
- 놀이 기반 상호작용은 부모효능감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아버지의 참여와 형제자매 지원 팁을 포함하는 구성을 제안함.
- 부모효능감은 치료 지속력의 핵심 요인이므로, 따라하기 쉬운 실천 예시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도록 구성해야 함.

○ 양육자 심리 지원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죄책감,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기돌봄과 수용을 돕는 심리적 지원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발달의 가소성과 현실적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실천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양육자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음.
- 두 분야 전문가 모두,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정확한 정보, 심리적지지, 실천 가능한 예시를 균형 있게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함.
-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는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소통 구조를, 의료 전문가는 선별 검사 이후 기관 및 서비스 연계 관련 정보의 구체성을 강조하였음.
 - 공통적으로 접근이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양육자가 따라하기 쉬운 실천 중심 구성,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 제시를 핵심 요소로 제시함.
-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실천적 부모교육 자료로서, 양육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과 기관이 함께 영유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Ⅲ.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내용

1. 개발 방향

- 개발 방향은 관련 선행연구 및 기존 개발된 국내외 부모 지원 자료 분석, 수요자 대상 FGI 결과, 그리고 유아교육·보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의료진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도출함.
 - 프로그램은 발달지연을 조기에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유아 양육자가 접근 가능한 실천 중심의 안내서를 지향함.
 - 프로그램은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양육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가정과의 연계를 담당하는 교사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구성함.

가. 모든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보편적 구성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양육자뿐 아니라 발달에 특별한 우려가 없는 영유아의 양육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자료로 설계함.
- 기관에서 양육자 대상 교육이나 상담 시에도 부담 없이 배포,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을 목표로 함.
- 양육자가 발달 선별 도구(예: K-DST 등)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접근을 촉진함.

나. 발달 문제 인식 초기 양육자를 위한 입문형 안내서

- 자녀의 발달 문제를 처음 인식하거나 의심하는 양육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감과 지지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함.
- “기다려보자”는 주변의 조언 속에서 개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기 개

입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구조로 설계함.

- 발달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불안을 줄이고, 실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돕는 입문형 자료로 개발함.

다. 이해와 실천 중심의 구성

- 전문용어보다는 쉽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양육자의 이해도를 높임.
-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와 팁을 중심으로 구성함.
- 놀이, 상호작용, 훈육 등 양육자가 가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구성으로, 접근성과 지속적 실천가능성을 높임.

라. 부모의 심리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 자료

- 자녀의 발달 지연 위험을 처음 인식한 양육자가 흔히 겪는 불안, 죄책감,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 메시지를 포함함.
-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균형 잡힌 언어를 사용함.
- 발달의 가소성과 변화 가능성을 강조하여, 양육자가 “내가 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함.

마. 디지털 기반의 접근성 강화

- 누리포털 누리집 개편과 연동된 온라인 기반 자료로 제공되어, 양육자가 필요할 때 검색과 열람이 용이하도록 설계함.
- 주요 발달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하고, 6컷 만화, 연령별 놀이 상호작용, 발달 체크리스트, 선별 검사 결과별 대응 흐름도 도식 등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이해와 몰입을 높임.
- QR코드, 영상 링크 등 디지털 연계 기능을 통해 심화 정보 탐색과 확장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바. 교사-가정 연계 강화

- 본 프로그램에는 교사용 참고자료를 별도로 구성하여, 교사가 양육자에게 자료를 전달하거나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교사용 참고자료는 부모교육 자료의 핵심 내용을 교사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으며, 교사가 작성·활용할 수 있는 발달 선별 도구 소개, 이를 토대로 한 양육자 상담 및 대화 예시 등을 포함함.
- 이러한 구성을 통해 교사와 양육자 간의 협력적 소통을 촉진하고, 가정과 기관이 함께 영유아 발달을 지원하는 연계 구조를 강화하도록 설계함.

2.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절차

가. PDF 자료 개발 절차

- PDF 자료는 연구진 내부 논의와 집중 워크숍을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서면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완성함.
 - 초안 작성 이후,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 경험이 있는 양육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서면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1차 수정본을 마련함.
 - 이어서 1차 수정본에 대하여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및 특수교육정책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발달지연 전공 의료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거쳐 내용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강화함.
 - 이와 같은 다단계 검토 및 수정·보완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신뢰도와 활용도가 높은 부모교육 자료로 완성함.
 - 다음 표는 이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PDF 자료 개발 절차임.

〈표 III-2-1〉 PDF 자료 개발 절차

구분	일정		내용
연구진 회의	1차	4.21(월)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자료 개발 사업 킥오프 미팅 - 전체 목차와 자료 방향성 조율
FGI	1차	5.8(목)	- 자료 개발 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자 FGI - 발달 지연 위험 영유아 양육 중이거나 경험이 있는 양육자
	2차	5.9(금)	- 자료 개발 의견 수렴을 위한 수요자 FGI - 발달 지연 위험 영유아를 교육·보육한 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전문가 자문회의	1차	5.12(월)	- 자료 개발 방향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 학계, 현장 전문가
	2차	5.15(목)	- 자료 개발 방향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 - 의료진 전문가
연구진 회의	2차	5.22(목)	- FGI,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검토 및 자료 개발 세부 내용 논의
집중워크숍	1차	6.2(목)	- 자료 개발 집중작업
연구진 회의	3차	6.23(목)	- 초안 구성 중간 점검 및 수정 사항 논의
초안 작성		7.10(목)	- 초안 작성 완료
서면 검토	1차	7.10(목) ~7.17(목)	- 초안 원고에 대한 서면자문 의뢰
삽화 콘티 제작	7.23(수)~7.30(수)		- 삽화 콘티 기획 및 제작
집중워크숍	2차	8.1(금)	- 검토 의견을 반영한 PDF 수정 방향 논의
삽화 제작	8.11(월)~11.3(월)		- PDF 자료 삽화 제작
수정본 작성 및 검토	1차	8.25(월)	- 검토 의견 반영하여 PDF 수정본 작성
연구진 검토		8.26(화)~ 9.2(화)	- 원내 연구진 검토 및 수정
서면 검토	2차	9.3(수)~ 9.11(목)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서면 검토
서면 검토	3차	10.10(금)~ 10.15(수)	- 발달지연 전문 의료진 서면 검토
서면 검토	4차	10.23(목)~ 10.27(월)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서면 검토
수정본 작성 및 검토	2차	9.12(금)~ 10.27(월)	- 서면 검토 의견 및 연구진 회의 논의 사항 반영하여 PDF 수정본 작성
윤문	10.17(수)~10.24(수)		- 윤문 전문 업체를 통해 윤문과 오타자 검수
디자인 시안	10.16(화)~10.27(월)		- 시안 검토 및 확정
윤문본 검토 후 최종 원고 확정	10.24(금)~10.27(월)		- 추가 수정 사항, 오타자 최종 검토 및 검수
디자인 본작업	10.27(월)~11.18(화)		- 디자인 작업
최종본 완성 및 누리포털 탑재	11.19(수)~11.28(금)		- PDF 자료 최종본 완성 및 누리포털 탑재

나. 동영상 자료 개발 절차

□ 동영상 자료는 PDF 자료를 기반으로, 핵심 내용을 시청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개발함.

- 개발 초기에는 연구진 내부 회의를 통해 동영상의 주제, 구성 방향, 형식(강의·인터뷰·대담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후 영상 제작 전문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기획, 제작 일정 및 기술적 방향을 구체화함.
- 동영상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집필진, 의료 전문가, 실제 양육자가 출연하여 전문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담보하였으며, 각 영상의 구성안과 시안은 연구진의 수시 검토를 거쳐 완성되었음.
- 영상 전반에 삽화와 자막을 활용하여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고, 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완성된 동영상은 누리포털과 유튜브 채널(i-누리)을 통해 탑재되어, 양육자와 교사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형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될 예정임.
- 다음 표는 이러한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 동영상 자료 개발 절차임.

〈표 Ⅲ-2-2〉 동영상 자료 개발 절차

구분	일정		내용
연구진 회의	1차	7.17(목)	동영상 개발 방향 논의를 위한 연구진 회의
업체 간담회	1차	5.8(목)	A 업체와의 미팅
	2차	5.9(금)	B 업체와의 미팅
업체 계약	8.19(화)		
업체-연구진 동영상 제작 착수 회의	9.3(수)		동영상 제작 방향성에 대한 논의
동영상 출연진 섭외	의료진	9.2(화)~9.15(월)	의료진 섭외 완료
	양육자		양육자 섭외 완료
구성안 작성 및 연구진 수시 검토	9.4(목)~9.24(수)		영상별 강의안 및 삽화 구성안 작성
삽화 제작	1차	8.11(월)~11.2(월)	삽화 제작
촬영	1차	9.24(수)	의료전문가 인터뷰 촬영
	2차	10.1(수)	집필진 강의 9편 촬영
	3차	10.15(수)	양육자 대담 1편 촬영

구분	일정	내용
1편 시안	10/23(목)~10/24(금)	동영상 1편 시안 완성
연구진 검토	10/23(목)~10/24(금)	동영상 1편 시안에 대한 연구진 검토
전체 영상 시안	11/5(수)~11/18(화)	전체 영상 시안 완성
연구진 검토	11/7(금)~11/21(금)	연구진 검토
수정본 완성 및 검수	11/21~11/26(수)	수정본 완성 및 연구진 검수
최종본 완성 및 누리포털 탑재	11/26(수)~11/28(금)	누리포털 및 유튜브 탑재

다. 실시간 연수 기획 및 운영 절차

□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PDF 및 동영상) 개발과 더불어, 실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비대면 연수(총 2회)를 기획·운영함.

○ 목적

- 모든 영유아 양육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자녀 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육 역량을 강화하며, 발달지연 위험이 있는 0~5세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양육 지원을 촉진함. 또한 추후 누리포털 및 유튜브에 탑재될 PDF 및 동영상 자료를 안내하고 활용을 활성화함.

○ 형식

- 실시간 비대면 강의(유튜브 송출)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하되,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실시간 채팅창을 통한 질문을 병행하여 운영함.

○ 활용

- 실시간 연수 영상은 추후 편집과 자막 삽입을 거쳐 누리포털 부모배움터(LMS)에 상시 학습용 콘텐츠로 탑재 예정

□ 연수 주제 선정

○ 영유아 양육자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2회차 연수를 각각 구성함.

- 1회차: 의사소통 발달,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일상 속 발달 증진 전략, 효과적인 훈육법
- 2회차: 발달 선별의 중요성, 검사 결과별 대응법, 연령별 놀이 지원 방법

□ 일정 및 운영 방식

○ 일정

-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12:50
- 참여 편의를 고려하여 평일 오전 11:00~12:50에 진행함. 이는 영유아 등·하원 시간 및 직장생활을 하는 양육자의 점심시간대 반영하여 더 많은 양육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임.

○ 구성

- 강의 40분 + 질의응답 10분
- 사전 질의 수집(신청 링크)과 당일 유튜브 실시간 채팅 Q&A를 병행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함.

□ 연수 자료 구성

- 강의용 PPT와 함께 개발 완료 단계의 PDF 및 동영상 자료 일부를 연수 콘텐츠로 활용함.
- 주요 개념과 실천 예시는 시각자료 중심으로 편집하여 양육자의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임.

□ 홍보 및 참여 안내

- 교육부 공문을 통해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어린이집·유치원에 공식 안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시스템 누리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육아정책연구소 및 누리포털 누리집 팝업, 육아정책연구소 공식 SNS(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다중 채널 홍보를 실시함.
- 홍보물에는 연수 일정, 참여 방법, 사전 질의 접수 링크(QR) 등을 포함하여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높임. (그림 III-2-1 참고)

[illegible]

- 조기 발견('아이 발달 살피는 첫 신호'): 발달의 기본 원리, 발달 지연 신호, 건강검진·선별검사 이해, 결과 해석
 - 양육 지원('아이 발달 돕는 양육 실천'): 좋은 양육 환경,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전략, 놀이·일과 중 지원, 훈육, 부모 마음 돌보기, 가족 지원
 - 정보 탐색('아이 발달 이끄는 똑똑한 정보'): 기관 선택과 교사 협력, 초등 전이, 서비스·바우처·지원체계 활용
- 양육자의 실제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실천 중심 구성

〈표 III-3-1〉 PDF 자료의 장별 내용 개요(양육자용)

영역 (영역 제목)	장	장 제목	설명
조기 발견 (아이 발달 살피는 첫 신호)	1	우리 아이의 발달을 이해해요 : 발달 원리와 함께 다름과 지연을 알아보기	- 발달의 원리 설명 - 발달의 개인차와 발달 지연의 차이
	2	우리 아이, 발달의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 발달 지연의 핵심 징후	- 연령별 발달이정표 - 연령별 발달지연의 핵심 징후
	3	아이 발달을 위한 건강검진 : 발달 선별 도구를 활용해요	- 발달 선별의 의미와 필요성 - 발달선별도구의 소개
	4	발달선별검사와 결과에 따른 여정 : 발달선별검사 결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까요?	- 결과 유형별 지원 방법 - 발달 검사 후 부모가 각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양육 지원 (아이 발달 돕는 양육 실천)	5	좋은 양육환경이란 무엇일까요? : 아이 발달을 돕는 가정환경 만들기	- 물리적으로 준비된 양육환경, 디지털 환경
	6	0~2세 아이를 위한 일과 중심 놀이 : 양육자와의 따뜻한 돌봄과 상호작용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 0~2세 아이를 위한 연령별 일과 중심의 놀이 아이디어 소개
	7	3~5세 아이와 함께 놀이해요 : 발달을 촉진하는 즐거운 놀이 아이디어	- 3~5세 아이를 위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아이디어 소개 - 아이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 소개
	8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요? :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전략	- 애착과 양육행동 - 정서적 접근과 정서조절

영역 (영역 제목)	장	장 제목	설명
	9	의사소통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요? : 의사소통 발달 단계별 상호작용 전략	- 의사소통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전략
	10	우리 아이 훈육, 어떻게 할까요? : 바람직한 행동 이끄는 3단계 훈육 원칙	-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
	11	일과 안에서 우리아이 발달 지원하기 : 아이 발달 키우는 일상생활 비법	- 일상생활 안에서 발달을 증진시키는 상호작용 전략
	12	마음 챙김으로 행복한 양육자 되기 : 사례로 생각해보는 양육자의 마음 돌보기	- 전반적인 양육 관련 심리적 어려움(양육 효능감, 우울 등) - 심화평가 권고나 추적 검사 요망 소견을 받았을 때, 부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
	13	행복한 가족이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 : 가족이 함께하는, 힘이 되는 양육	- 공동양육,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 등 가족지원
정보 탐색 (아이 발달 이끄는 똑똑한 정보)	14	아이의 기관 생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 까요? : 기관 선택과 선생님과 협력 위한 실 천 가이드	- 영유아 자녀가 이용할 기관(어린이집/유 치원) 찾기와 교사와의 협력
	15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준비할까요? : 아이와 함께 준비하는 초등학교 입학 이 야기	- 초등학교에서 요구되는 준비 - 특수교육대상자 재선정 이후, 초등학교 선택과 관련한 내용
	16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으셨나요? : 즐거운 정보 찾기	- 법적 바우처, 지원센터 찾기, 공신력 있 는 정보 찾기 등 소개

2) 교사용 참고 자료(2장)

□ 기관에서 교사가 양육자와 협력하고 일상 관찰과 소통을 통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의 두 영역으로 구성됨.

- 조기 발견: 교실에서 선별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양육자에게 발달 문제를 소통하는 방법
- 양육 지원: 양육자용 자료의 핵심 내용을 교사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실천 안내

→ 기관-가정 간 일관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용 가이드

〈표 Ⅲ-3-2〉 PDF 자료의 장별 내용 개요(교사용 참고자료)

영역	장	장 제목	설명
조기 발견	1	‘조금 느린 혹은 다른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교사를 위한 발달 선별 이해와 활용	- 교실에서 선별 도구를 활용하기 - 아이의 발달 문제를 양육자와 소통하기
양육 지원	2	양육지원, 어떻게 할까요? :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위한 양육지원 지침	- 양육자용 자료의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교사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버전

3) 냉장고에 착! (부착용 활용 자료)

□ 가정에서 한눈에 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부착형 자료로 구성됨. 냉장고나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고 활용하도록 설계됨.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결과별 대응 요약(일반 발달/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 시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본 대응법)
- 0~2세 놀이 아이디어(일과 중심의 상호작용 놀이)
- 3~5세 놀이 아이디어(발달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확장 가능한 놀이 아이디어)
→ 양육자가 붙여두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요약본

□ PDF 자료의 전체 구성 특징

- 각 장을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관심 있는 주제부터 선택해 읽을 수 있음.
- 양육자용 자료와 교사용 참고 자료 모두 6컷 만화-도입-본문-Q&A-한 걸음 더의 기본 구조를 갖추고, 실제 상황을 반영한 실천 중심의 구성으로 설계함.
- 양육자용 자료에는 가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예시,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됨.
- 교사용 참고 자료에는 기관-가정 연계, 양육자 상담, 일상 관찰 등 실제 상황에 필요한 대화 예시와 실천 안내가 포함됨.
- 연계 영상(QR 코드)을 통해 각 장의 핵심 내용을 보완하는 영상 자료를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부착용 활용 자료 ‘냉장고에 착!’은 양육자용·교사용 참고 자료와 연계하여 핵심 내용을 가정에서 쉽게 참고하도록 안내함.

- 세 자료는 서로 연계되어 가정과 기관이 일관된 방향으로 영유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됨.

□ PDF 자료의 장별 구성 특징

○ 주제에 따라 장별 구성과 분량은 다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 구조로 이루어짐.

- 6컷 만화: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통해 주제 소개
- 도입: 장의 주요 내용과 핵심 메시지 제시
- 본문: 핵심 개념과 실천 내용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
- Q&A로 알아보는 OOO: 실제 가정,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
- 한 걸음 더: 도움이 되는 정보나 심화 내용을 제시

[그림 III-3-1] 양육자용 PDF 내용

6컷 만화	다양한 구성의 본문 (도입, 체크리스트)
<div data-bbox="214 1323 228 1391"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부모의 역할</div> <div data-bbox="268 1021 631 1685"> <p>8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요?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전략</p> </div> <div data-bbox="214 1675 228 1695">62</div>	<div data-bbox="785 1048 1163 1146"> <p>가정환경은 아이의 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발달을 도우려면 우리 집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이 장에서는 가정에서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p> </div> <div data-bbox="785 1215 1163 1293"> <p>우리 집 환경 점검하기</p> <p>우리 집은 아이에게 어떤 환경일까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발달을 돕는 요소를 점검해 봅시다.</p> </div> <div data-bbox="799 1313 1156 1421"> <p>놀이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즐겨 노는 놀잇감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잇감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놀잇감은 아이가 혼자서 꺼내거나 찾기 쉽게 보관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놀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놀잇감이 잘 정리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어지르는 것을 인정하며 충분히 놀도록 해준다. </div> <div data-bbox="799 1440 1156 1617"> <p>언어 및 정서적 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하루 중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을 건네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충분하다. <input type="checkbox"/> 몸집이 단개라면 아이가 내는 소리나 몸짓을 의사소통처럼 반응해준다. <input type="checkbox"/> 예: 몸집아를 할 때 "오, 그래?"라고 말로 대답해주기 <input type="checkbox"/> 아이가 말할 때 중간에 가로세서 대신 말해주거나 잠시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 <input type="checkbox"/> 아이의 감정을 읽고 적절한 말로 표현해준다. <input type="checkbox"/> 예: 울 때 "아유, 속상하구나" 등으로 표현하기 <input type="checkbox"/> 책꽂이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고르기 쉽게 놓여 있다. <input type="checkbox"/> 매일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어준다. </div> <div data-bbox="735 1244 749 1470"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ransform: rotate(180deg);">영양과 발달 (영양) 영역 관련 내용 (영양) 영역 관련 내용 (영양) 영역 관련 내용</div> <div data-bbox="735 1656 749 1675">40</div>

다양한 구성의 본문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팝콘브레이크와 패킹(phubbing)

✓ 팝콘브레이크란 무엇인가요?

팝콘처럼 폭발 튀는 디자인의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가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끼고 단순한 현실의 자극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 지연, 주의력 결핍,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책 읽기 놀이,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 집중력이 감소하여 학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가짜라는 상황 등에서 짜증, 불안,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패킹이란 무엇인가요?

'패킹(phubbing)'은 'Phone(전화)'과 'Snubbing(무시하다)'을 합친 말이며,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대화를 소홀히 하게 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알뜰지가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면 아이의 시선이나 말, 몸짓 같은 상호작용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의 애착 형상이나 의사소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건강, 유튜브 영상

다양한 구성의 본문 (QR로 동영상 자료 연계)

내 아이의 의사소통 촉진하기

다음의 상황에서 아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려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할까요? 앞에서 학습한 상호작용 방법을 떠올리며 적절한 방법을 골라보세요.

상황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비고(기대)
할아버지 우정을 같이 할려고 어머니 손을 무릎 위에 얹어 표현하는 경우	① 같이 앉아서 표현한 줄 알려 재미있게 반응해주기 ② 두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어미 대산 '떨어주세요.'라고 말하며서 무릎 떨어주기	QR
아이가 자동차를 끌리며 흔들고 있는 경우	① 자동차를 가리키며 '기차' '자동차' '자동차' 따라 세레 '기차' 말하며 가르치고 세레 따라 하도록 시키기	QR
아이가 흥미를 대서 표현하려고 '행복' 자동차가 기요.'라고 말하며 아이가 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반응 심하기	① '아기, 행복' 대서 표현하고 '행복' 자동차가 기요.'라고 말하며 아이가 일에 관심을 보이면서 반응 심하기	QR
아이가 바닥에 있는 사탕을 보고 '빨'이라고 말한 경우	① '그기 빨 아니요 사탕아래'라고 반응하며 빨라 표현 고사주기 ② '빨'대서 사탕아래 빨라 표현 고사주기	QR
아이가 함께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경우	① '아기, OO 노래 잘해요.'라고 칭찬하기 ② '아기, OO 노래 잘해요.'라고 칭찬하기	QR
아이가 고사 사탕을 떨쳐 놓는 경우	① '아기, OO 노래 잘해요.'라고 칭찬하기 ② '아기, OO 노래 잘해요.'라고 칭찬하기	QR

아이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영상으로 제공해요.

다양한 구성의 본문 (Q&A로 알아보는 000)

Q & A

Q&A로 알아보는 "슬기로운 초등 학부모 생활"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학년 세 가지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합니다.

첫째, 가정통신문으로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중요한 학교 행사와 가정에서 알아야 할 교육 내용을 안내합니다. 요즘에는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 외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같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 플랫폼은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되어 있어 학교의 주요 공지 사항과 안내를 안내받아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알림장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나 1학년은 아직 글자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아 알림장을 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에 학교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제한 언어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와 학교 교육을 오히려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소통 방법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 입학을 늦추는 게 좋을까요?

언제든 아이의 또래보다 발달이 느릴 때 입학은 1년 늦추는 후 조금 더 발달한 뒤에 학교에 보내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대체로 입학의 늦추기보다 제 나이에 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집이나 유치원에서 1~2년 더 배우며 얻는 이득보다 같은 나이 친구들과 생활하며 성장하는 것에는 훨씬 큰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같이 생활한 친구들과 함께 입학하면 학교 적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입학의 늦추는 자료집이나 교육에 등 일부 교육 내용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구성의 본문 (성찰지)

작지만 소중한 나만의 마음 챙김

목표를 하다 보면 나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해 쉽게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거나 편안하게 해 주는 방법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잠시 쉴게 하거나 나에게 힘을 주는 일은 무엇인가요?

(예: 노래 사귀기, 물리하는 등기, 따뜻한 샤워하기, 식물심기)

감사한 일을 자주 떠올리면, 우리 뇌의 '감사 회로'가 활성화되어 부정적인 감정은 줄고 하루의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작은 감사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고맙았던 순간과 나 자신에게 미련한 마음을 건네 보세요.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예: '나의 보람 시간'에 참여한 분들에게 편지, 그림, '나의 보람' / '나의 감사'를 쓴 편지, '나의 감사'를 쓴 편지)

119


9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것은 중요입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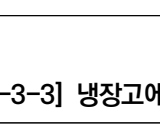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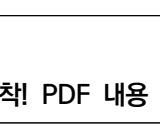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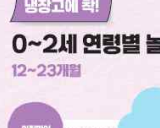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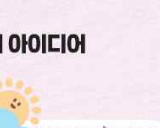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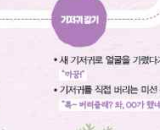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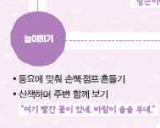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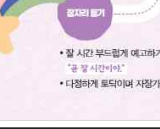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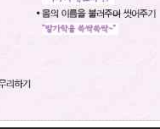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아이가 상호작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어요.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조언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발달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양육 역할을 키우는 데 고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아 발달 단계별 놀이 활동 지도법 0~2세 영아 발달 단계별 놀이 활동 지도법

발달고에 락!

0~2세 연령별 놀이 아이디어

12~23개월

어제부터

- 발은 노래를 인식하기
- 기본 놀기
- “OO야, 오늘 기운은 어때?”

기대하기

- 새 기저귀로 얼굴을 가렸다기
- “아빤!”
- 기저귀를 직접 바리는 미션 주기
- “혹~ 비어올라?” 와, “OO야 한테”

바기

- 놀이개 시작 알리기
- “할 일의 도움을 해 주세요!”
- 놀이개에 맞춰 움직여주기
- “장난감, 힘써 줘!”

놀이개

- 놀이개에 맞춰 손가락 흔들기
- 신발에 주변 함께 보기
- “바기 앞만 보이 안돼 바깥이 숨을 수래.”

장난감 놀기

- 잘 시간 부드럽게 예고하기
- “곧 잠 시간이야!”
- 다정하게 토닥이며 자장가로 마무리하기

발달을 돕는 놀이 더하기

엄마-아빠와 놀아주기 놀이

- 영아 발달 영역
- 대인관계 사회성

- 영아 발달 영역
- 아이들 사귀기 두뇌, 두뇌를 열어주는 손놀림이 많아지도록 하기
- “네가네가 할래?”
- 영아 한 걸음 더 TiO
- 영아 거리를 놀라거나 반항을 바꾸어 알게 하기
- 비치에 있는 물건을 주워 오게 하기
- 영아 신발 등 불안정한 바닥에서도 걷게 하기

이름 부르기 놀이

- 영아 발달 영역
- 언어 사회성

- 영아 발달 영역
- 주변 생애가 지은 곳에 있어 오기까지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아이가 시선을 돌리며 반응하면 나타내서 이름을 다시 부르고 웃고 안아주기
- “OO야, 바깥~OO 이름을 불러주세요!”
- 영아 한 걸음 더 TiO
- 영아 이름을 부르며 손가락 흔들기
- 영아 이름을 부르며 바깥을 살펴서 안아주기
- 반응 듣기
- 영아 놀이개에 있는 곳에서도 놀이하기

손가락 그림 놀이

- 영아 발달 영역
- 소근육 사회성

- 영아 발달 영역
- 무의성 물감을 손가락에 묻혀 물에 위에 자유롭게 찍고 문지르며, 그리게 하기
- “OO야, 색깔도 바르게 칠해줘!”
- 영아 한 걸음 더 TiO
- 영아 손바닥과 발바닥도 찍어 다양한 공간 경험하기
- 영아 색칠 색이 새로운 색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 영아 완성된 그림을 붙여 액자에 걸리게 하기

영아 발달 단계별 놀이 활동 지도법 0~2세 영아 발달 단계별 놀이 활동 지도법

08

09

나. 동영상 자료

- PDF 자료의 핵심 내용을 시청각 중심으로 쉽게 이해하고 실제 양육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자료(양육자용 8편, 교사용 2편)를 제작함. 영상은 PDF 자료의 주요 주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영상은 QR 코드를 통해 PDF 자료와 연동되어 즉시 시청할 수 있음. 영상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III-3-3〉 동영상 자료의 영상별 내용 개요(양육자용)

영역	번호	영상 제목	설명
조기 발견	1	우리 아이, 조금 느려도 괜찮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의 원리 설명 - 연령별 발달이정표 - 연령별 발달지연의 핵심 징후 - 의료 전문가 인터뷰 포함
	2	누구나 하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결과 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 - 발달 검사 후 부모가 각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 의료 전문가 인터뷰 포함
양육 지원	3	우리집이 발달 놀이터	- 물리적으로 준비된 양육환경, 디지털 환경
	4	먹·놀·잠! 0~2세 놀이 제대로 알기	- 0~2세를 위한 일과 중심의 놀이
	5	놀이가 곧 발달! 3~5세 놀이 제대로 알기	- 3~5세를 위한 가족이 함께 하는 놀이
	6	떼쓰고 우는 아이, 어떻게 대할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법 - 정서적 접근과 정서조절 - 효과적인 훈육을 위한 상호작용 전략
	7	우리 아이 말문 틱우는 즐거운 소통의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법 - 말하고 싶게 만드는 전략
심리 지원	8	좋은 부모가 되려는 당신에게	- 실제 발달지연 영유아 양육자가 출연하여 서로를 공감하고 힘을 주는 영상

〈표 III-3-4〉 동영상 자료의 영상별 내용 개요 (교사용 참고 자료)

영역	번호	영상 제목	설명
조기 발견	1	교사라면 꼭! 발달 선별부터 양육자 상담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선별 도구를 활용하기 - 아이의 발달 문제를 양육자와 소통하기
양육 지원	2	교사라면 꼭! 가정과 함께 아이 성장 이끌기	- 양육자용 자료의 핵심 내용을 축약하여 교사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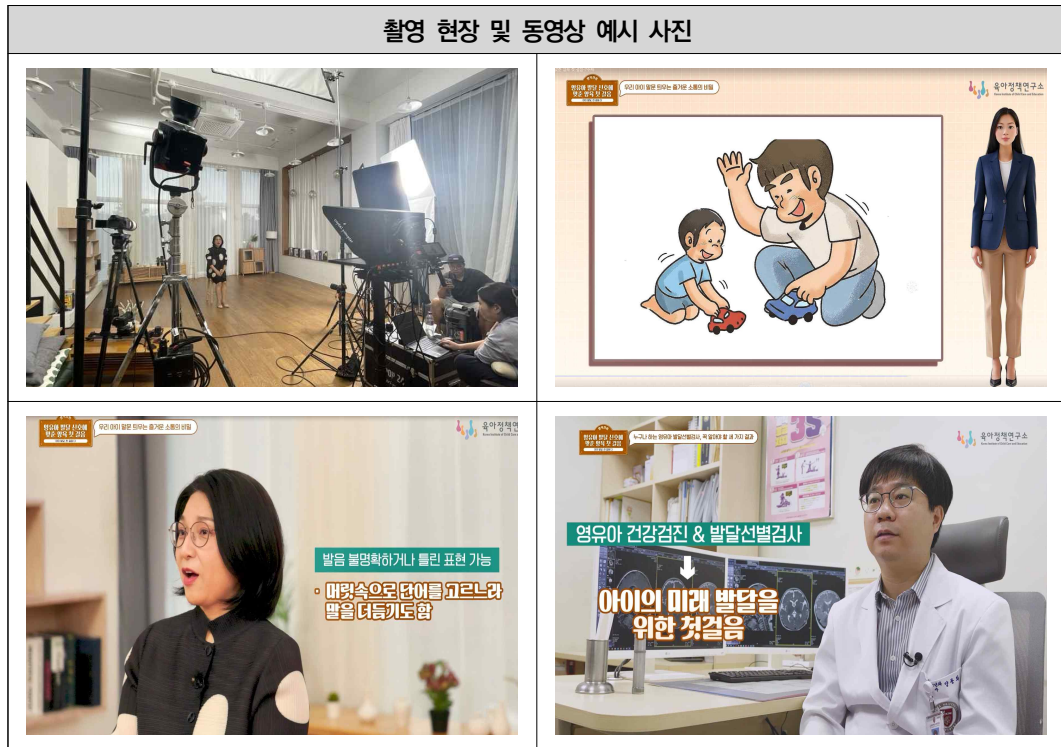
[그림 III-3-4] 동영상 섬네일 예시

양육자용 동영상 섬네일 예시	교사용 동영상 섬네일 예시
	

□ 동영상 자료의 주요 특징

- PDF 자료와 연동된 짧고 명확한 구성으로, 각 주제의 핵심 내용을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함. (양육자용은 편당 5~10분, 교사용은 편당 15분 내외)
- 강의, 전문가 인터뷰, 움직이는 삽화를 통한 상호작용 예시,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단순 강의형을 넘어 실제 상황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함.
- AI 기반 움직이는 삽화를 활용하여 양육자-자녀 간 상호작용 장면을 실제 상황처럼 구현하고, 자녀의 행동에 양육자가 흔히 하는 반응 예시와 발달을 촉진하는 더 바람직한 반응 예시를 대비하여 제시함으로써 양육자가 따라할 수 있도록 도움.
- 양육자용 영상에는 발달지연 영유아를 키우는 실제 양육자 2인이 출연하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심리·정서 지원형 영상(「좋은 부모가 되려는 당신에게」)을 포함함. 이를 통해 양육자 간 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제공하고자 함.

[그림 III-3-5] 촬영 현장 및 동영상 예시 사진



다. 실시간 비대면 연수(양육자 대상)

□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PDF 및 동영상) 개발과 더불어, 실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비대면 연수(총 2회)를 기획·운영하였음. 연수는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양육자를 중심으로 하되, 모든 영유아 양육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자녀 발달 이해, 발달 선별의 활용, 양육 역량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함. 또한 앞서 제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을 강의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하여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추후 누리포털 등에 탑재될 PDF 및 동영상 자료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의 성격도 가짐.

□ 연수 운영 개요

- 일시: 2025년 11월 11일(화) 11:00~12:50
- 방식: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 구성: 사회자 진행 → 1강(포항 스튜디오) → 2강(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대상: 전국 영유아 양육자

〈표 III-3-5〉 실시간 비대면 연수 내용 개요

영역	번호	실시간 비대면 연수 제목	설명
양육 지원	1	양육의 기초: 말 튀우기 비법부터 떼쓰기 대응까지	- (모든 영유아 부모를 위한) 의사소통 발달,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 일과 속 발달 증진 전략 및 효과적인 훈육법
조기 발견	2	우리 아이, 느린 발달일까? 발달 신호 읽고 놀이로 돕는 법	- (발달 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를 위한) 발달 선별의 중요성 - 검사 결과별 대응법 및 연령별 놀이 지원 방법

□ 연수 운영 방식

○ 송출 구조

- 실시간 비대면 연수는 육아정책연구소(서울)를 중심 송출지로 두고, 포항과 서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음.
- 1강은 강의자가 포항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육아정책연구소(서울)에서 전체 송출과 화면 전환을 담당함. 서울 송출팀은 포항 강의 화면과 사회자 화면을 실시간으로 조합하여 하나의 연속된 연수처럼 자연스럽게 송출함.
- 2강은 강의자와 사회자 모두 육아정책연구소(서울)에서 진행하였으며, 전체 송출 또한 서울에서 일괄 관리함.

○ 프로그램 흐름

- 각 강의는 강의(40분) → 사전 질의응답(7분) → 실시간 질의응답(3분)으로 구성되었음.

○ 현장 운영 사진

- 포항 및 서울 송출 현장, 실시간 송출 화면 등은 다음과 같음.

[그림 III-3-6] 실시간 비대면 연수 송출 현장 (포항/서울)



□ 실시간 참여 현황

- 두 차시 모두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1강 최대 289명, 2강 최대 235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함. 실시간 수 캡처는 다음과 같음.

[그림 III-3-7] 실시간 시청자 수 캡처

실시간 시청자 수(1강)	실시간 시청자 수(2강)
<p>실시간 시청자 수(1강)</p> <p>행동지원의 키워드 공감, 애착, 그리고 소통</p> <p>핵심메시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육자가 처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해야(당황하지 않아야) 2.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어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통할 것입니다 3.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해야 4.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5. 긍정적인 표현은 아이에게 보내고 꼭 언어화해야 6.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해 주어야 <p>설명</p> <p>[LIVE] 아이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 걸음 I 모든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p> <p>31 좋아요 289 시청자 수 11월11일 2025년</p>	<p>실시간 시청자 수(2강)</p> <p>우리 아이, 느린 발달일까? 발달 신호 읽고 놀이로 돕는 법</p> <p>사회정서 행동 선별: K-EISE</p> <p>허계형 교수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p> <p>실시간 채팅 주요 메시지 235</p> <p>@shoirasamandarova766 #3 잘 들립니다</p> <p>@dalkongP 잘들림요</p> <p>@shoirasamandarova766 #3</p> <p>@트로픽토닉 #1 이제 잘들려요^^</p>

□ 연수 콘텐츠 구성

- 연수에서는 개발 중인 PDF 자료와 동영상 자료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제시함.
- 이를 통해 참여 양육자가 향후 공개될 부모교육 자료(PDF, 동영상 자료)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이러한 사전 노출은 양육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완성본 자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높이는 역할을 함.

[그림 III-3-8] 실시간 연수 PPT 자료 예시

실시간 연수 PPT 자료 예시(1강)	실시간 연수 PPT 자료 예시(2강)
실시간 연수 PPT 자료 예시(PDF 자료 활용)	실시간 연수 PPT 자료 예시(동영상 자료 활용)

□ 사전 질의응답 운영

○ 운영 방식

- 연수 전 홍보물에 안내된 사전 질문 접수(QR 코드)를 통해 질문을 수집하고, 이를 자녀 연령 및 주제별(영유아 양육, 발달 지연 신호 등)로 분류함.
- 분류된 질문은 강의자에게 사전 공유하였으며, 1·2강 간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구진이 조율함.
- 사전 질문 예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III-3-6〉 사전 질문 예시

연령	발달 지연 신호 관련 질문	영유아 양육 관련 질문
0~11개월	- 9개월 아이 양육중인데 아주 간단한 동작(안녕, 짜짜궁 등)을 잘 따라하지 않는데 느린 걸까요?	- 9개월인데 소리를 많이 지를 때 훈육이 필요한 걸까 고민이 됩니다. 훈육은 언제부터 해야 할까요?
12~23개월	- 23개월 아이가 한 음식은 따라 말하지만 단어를 붙여 말하지 못합니다. (예: "주~(주~) 세~(세~) 요~(요~)"는 가능한데 "주세	- 12개월 남자아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마를 바닥에 세게 부딪쳐 우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알려줄 수

연령	발달 지연 신호 관련 질문	영유아 양육 관련 질문
	<p>요”는 불가). 우유는 “우이”, 물은 “음물”처럼 교정이 안 되는데, 이 시기에 이런 모습이 정상 범주인지 더 기다려도 될까요?</p> <p>- 17개월에 동물소리(짹짹, 맴맴, 꿀꿀 등)와 우유, 맘마, 까까, 엄마, (아)빠 정도만 말하는데, 17개월 언어 수준으로 괜찮을까요?</p> <p>- 20개월인데 “아빠, 엄마, 누나” 외의 단어 표현이 거의 없지만 말귀는 잘 알아듣는 편입니다. 언어 발달에 걱정이 필요한 상황인가요?</p> <p>- 16개월 남아입니다. 걷기 등 대근육 발달은 빠르고 활동적이지만, 엄마, 아빠 소리도 없고, 배웠던 말(“안돼”)도 사라졌습니다. 곤지곤지, 뽀이뽀이 같은 모방 행동도 거의 하지 않고, 부르면 잘 쳐다보지 않아 자폐성 장애도 걱정됩니다. 다만 “안돼”, “앉아” 등은 알아듣고 반응합니다. 이 경우 발달 평가나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p>	<p>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p> <p>- 23개월. 밤에 갑자기 깨서 크게 울고 달래지지 않다가, 완전히 깨워야 진정됩니다. 야경증인지, 깨워서 달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p> <p>- 17개월.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물려고 합니다. 단호하게 말리면 자기 손을 무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p> <p>- 17개월인데 모유 수유를 해서 그런지 쪽쪽이를 안 물고 손가락을 계속 빠는데, 계속 두어도 되는지, 중단을 시도해야 할지 고민됩니다.</p> <p>- 17개월. 분리수면을 시작해도 될까요?</p> <p>- 20개월. 식사 중 밥, 수저, 물통을 던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입 안 음식을 꺼내 던집니다.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p> <p>- 18개월 남자아기. 아직 어린이집은 안 보내고 평일에는 엄마와 주로 문화센터나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을 다닙니다. 동요를 틀어주면 춤을 잘 춰서 음악수업을 다니고 있고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보며 잘 앉아있고 경청하는 것 같은데 저희 아기는 자꾸 공기청정기나 시스템 에어컨 스위치만 만지려 합니다. 지인이 아기 때 불빛 나는 장난감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거라는데 걱정됩니다. 또, 미디어노출은 최대한 피하고 있지만 휴대폰, 영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엘리베이터나 버스에서 재생되는 광고영상, 식당의 TV에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아기때부터 양가 어른들과 영상통화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노출을 줄이면 집착이 줄어들까요? 또, 말귀는 잘 알아듣지만 “안 돼”하면 울어버립니다. 어디에선가는 24개월 전까지는 다독여주라고 하던데 토닥토닥 달래주면서 설명해야 할까요?</p>
24~35개월	<p>- 24개월 남매 쌍둥이 입니다. 둘 다 정확한 단어는 아직 어렵지만, 의사표현은 종종 됩니다(예: “이게머야?”/“이건 토순이가 먹다 흘린 밥풀이야~”/“바꾸리야?”/“웅~ 밥풀이야. 바지가 다먹었네~”/“호호~”(리액션...)). 특히 한 명이 말하면 다른 한 명은 가만히 듣기만 하고, 딸아이 쪽이 말을 더 많이 함</p>	<p>- 24개월 남매쌍둥이 엄마입니다. 아이들 성격, 성향이 달라 훈육이 어렵습니다. 콘센트를 만지거나 서로 물고 싸울 때 제지하면 고집을 부리고 떼를 써서 저도 화를 내게 돼요. 아직 어린 시기라서 이런 걸까 고민되는데, 두 아이를 더 현명하고 슬기롭게 훈육할 방법이 있을까요?</p>

연령	발달 지연 신호 관련 질문	영유아 양육 관련 질문
	<p>니다. 이런 쌍둥이 간 말하기 편차, 정상 범주인지요? 두 아이의 언어 발달을 위해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p> <p>- 30개월인데 언어가 늦어요. 알아는 듣고 단어는 따라하려 하지만, “엄마 배고파” 같은 문장은 못하고, 질문에 “네/아니요”로 대답도 잘 못합니다. 이런 경우 문장 발달과 응답 능력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p> <p>- 28개월 여아인데 담임선생님이 언어가 느리다고 합니다. 단어를 이제 막 말하기 시작 수준이고, 따라 말하기만 가능합니다. 언어가 느린 아이는 어떻게 언어를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또, 때가 심하고 울음으로 표현하고, 질투도 많고,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일 때 정서 조절과 표현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p> <p>- 28개월인 저희 아이는 새로운 환경, 장소를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나 친구 집에서도 탐색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만 안겨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적응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p> <p>- 30개월 아이 키우는 엄마입니다. 발달 전에 지연이 있어요. 대근육, 소근육 모두 느리고(15개월쯤 걸음) 7개월쯤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재활 계속 했어요. 언어도 17개월부터 치료 중이지만 30개월이 된 지금도 자발어가 거의 없습니다. 요구는 주로 짜증을 내는 것으로 표현하거나 저를 당기는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해 언어와 사회적 상호작용은 부분적(눈맞춤, 사회적 미소, 행동 모방 등)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복합적 발달 지연 상황에서,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p> <p>- 31개월 여자아이입니다. 배변훈련 중인데, 소변은 그럭저럭 되지만, 대변은 변기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저귀를 다시 찾거나 참아버리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소변도 변기에서 못한다고 합니다. 대변 훈련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p> <p>- 26개월된 아이인데 단어와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하지만, 두 단어 연결이 안 되고 말이 막히면 소리를 지릅니다. 또래들이 많이 말하는 환경에서는 말 자체를 안 하고 의기소침해진 느낌입니다. 이럴 때 언어 자신감과 표현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p> <p>- 응가를 하고도 놀이터에 있는 목마를 타요.</p>	<p>- 30개월 아이가 스스로 수저질을 할 수 있는데도 먹여주길 바랍니다. 식욕이 많지 않아 계속 제가 먹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먹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p> <p>- 28개월 아이의 언어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정상 범주인지 알고 싶습니다. TV나 휴대폰 노출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하원 후 집에서 해줄 수 있는 언어 발달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어가 느리고 때가 심한 아이는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잘 먹지 않고 잘 씹지 않는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면 좋을까요?</p> <p>- 28개월 아기가 동생이 생긴 뒤로 엄마에게 강하게 매달리고 떼쓰는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는 잘 지내지만, 엄마만 보면 “엄마만 해줘”라며 계속 의존하려고 합니다. 이런 엄마에게만 과도하게 매달리는 행동,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p> <p>- 24개월 아이가 양치, 밥 먹기, 옷 입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 행동에 전부 “싫어”라고 반응합니다. 차분히 설명해도 계속 떼를 쓰다가 결국 제가 화를 내야 상황이 끝나고, 그제서야 행동을 합니다. 위험한 행동은 제지하면 금방 멈추는데, 일상적인 행동만 이렇게 힘들어요. 억지로 하게 하다 보니 아이가 괴성 지르며 울 때마다 너무 속상한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p> <p>- 31개월 딸아이입니다. 29개월부터 생활 루틴(엘리베이터 먼저 누르기, 화장실 갈 때 엄마 손잡기, 집 들어갈 때 정해진 동선 등)에 대한 고집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아이보다 먼저 행동하면 방방 뛰며 울고 소리를 지르고, 공공장소에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울고 고집을 부립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사소한 것도 싫다고 하고, “혼자 할래” 행동이 지나치게 강해져 대처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강한 루틴, 고집, 통제 욕구, 그냥 허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훈육으로 잡아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p> <p>- 26개월 아이가 단어만 말하지만 말귀는 아주 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을 때는 정리하지는 말을 못 들은 척 도망가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가끔은</p>

연령	발달 지연 신호 관련 질문	영유아 양육 관련 질문
	<p>찹찹한 걸 모르는 거 같아요. 감각에 문제가 있는 걸 까요? (28개월)</p>	<p>스스로 정리하지만, 책을 읽고 싶거나 과자를 먹고 싶을 때처럼 보상이 있을 때만 정리를 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정리를 선택적으로 하는 모습, 어떻게 지도해야 하나요?</p>
36~71개월	<p>- 57개월 아기인데요.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주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방방 뛰며 격하게 반응합니다. “조금 이따 하자”는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런 즉각적, 강한 반응이 정상 발달 범주인지 궁금합니다. 또 상어에만 3년째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는데, 관심사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이 걱정할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p> <p>- 36개월 첫째 아이인데 식탐이 거의 없고 배만 찰 만큼만 먹습니다. 키는 상위권이지만 매우 마른 체형이며, 또래보다 작아 보여 걱정됩니다. 달거나 자극적인 음식이라도 먹고 싶다고 하면 주는 게 맞을지, 식습관 개선과 성장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p> <p>- 51개월 아이인데, 속상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을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먼저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언어 표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울음 중심 표현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궁금합니다.</p> <p>- 34개월 아이입니다. 요즘 들어 말할 때 “아아아아아아빠가”, “어어어어어어어린이 집에서” (특히 아나 어를)처럼 음절을 길게 늘이기도 하고, 발음이 부정확해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설소대 수술 경험이 있는데, 이런 말눌임, 부정확한 발음이 치료가 필요한 문제인지, 발달 과정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궁금합니다.</p>	<p>- 47개월 남아입니다. 화가 나서 때린 뒤 혼내면 “엄마가 때렸어”라고 거짓말을 하고, 훈육하려 하면 말끝마다 “엄마도!”라고 말대꾸합니다. 이런 말대꾸, 왜곡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p> <p>- 36개월 조금 넘은 아이입니다. 훈육하려 하면 아이가 갑자기 서럽게 울어 마음이 약해지고, 눈물 없이 체벌 없이 올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의 감정 상함 없이 단호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p> <p>- 57개월 아이입니다. 말이 느려서 생각대로 안 되면 때리는 행동이 나오고, 때리면 좋아하는 행동 제한(장난감, TV 등)으로 훈육 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오늘 못 노는 거야? TV 못 봐?” 같은 불이익에만 집중합니다. 이 방법을 계속 써도 되는지, 더 나은 훈육 방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만 3돌인 첫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2돌 이후 떼쓰기, 잉잉 울기, 발 구르기, 소리 지르기가 심해졌습니다. 부모가 마음 읽기와 단호함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고, 둘째(21개월)도 이를 따라합니다. 효과적인 떼쓰기 대응법과 부모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리고 참고할 만한 책 추천을 요청합니다.</p> <p>- 51개월 아이입니다. 졸려도 자려 하지 않고, 잠들기 전 텐션이 높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침실로 들어가는 수면 루틴 반복으로 좋아질까요? 수면 교육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긴 문제일까요? 그리고 가끔 특정 옷을 절대 안 입으려 할 때, 달래서 입히는 것이 아이의 자기주장 발달에 해가 될지 고민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자주 때립니다. 반복적인 훈육으로 점차 나아질 수 있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p>

○ 강의별 질의응답 운영 요약

- 사전 질문은 주로 언어 발달, 감정 조절, 훈육(떼쓰기, 고집, 울음), 수면·식사·배변 등 기본 생활 습관에 집중됨.
- 두 차시의 흐름과 관련성이 높은 질문을 중심으로 각 강의자가 2~3개의 질문을 선정하여 답변을 준비·진행함.
- 강의자는 정상 발달 범위, 주의해야 할 신호, 일상에서 적용 가능한 양육전략, 부모의 과도한 걱정 완화 등을 중심으로 실천적 답변을 제공함.

□ 실시간 질의응답 운영

○ 운영 방식

- 실시간 유튜브 스트리밍의 대화창을 통해 참여자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피드백, 참여자 간 상호 인사, 연수 송출 상황(화면 전환, 음량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 이에 더하여, 연수 내용에 따라 자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정서 발달, 훈육 고민, 발달선별검사 결과 해석 및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실시간 질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연구진은 실시간 대화창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응대함. 특히 송출 상황이나 연수의 추후 활용 방식(편집 녹화본 업로드 시기 및 채널) 등 즉시 안내 가능한 내용은 연구진이 직접 응답하여 연수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한 양육자도 이후 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연수 내용에 관한 질문 중 연구진이 직접 응답할 수 있는 범위(예: 관련 홈페이지 접속 방법)는 즉시 안내하되, 강의자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취합·정리하여 강의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각 강의에서는 사전 질문 답변 이후 별도의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참여자들이 강의 내용을 들으며 떠오른 궁금증을 바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
- 실시간 소통 및 질의응답의 예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Ⅲ-3-7〉 실시간 소통 및 질의응답 예시

범주	참여자 실시간 대화	응답 (연구진·강의자)
피드백 및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다림이 중요 - 오늘강의 넘 유익해요 - 전 다른 부모교육 다녀봤는데 지금 강의 너무 좋습니다 - 실비로 청구가 가능하군요? 전혀 몰랐어요 	-
송출 상황	-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화면도 멈추어졌고 소리도 안들려요.	- 화면, 소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 탐재 관련	- i-누리 사이트에 학부모 포털에 자료누리에 오늘 pdf가 올라오나요?	- i-누리 학부모 포털 자료누리)부모교육자료에 pdf와 영상 자료 모두 올라갑니다.
	- 누리포털에 PDF자료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나 로그인해서 자료 다운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료는 다운로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연수는 다시 시청하시려면 회원가입하여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내용이 너무 좋아서 추후에 다시 듣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혹시 강의 끝나고 다시보기도 가능한가요? 	- 오늘 연수는 i-누리 학부모 포털 연수누리에서 12월 중 다시보기 가능합니다
연수 내용 관련	- 발달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K-DST 검사는 ‘국민건강보험>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실시안내>영유아 건강 검진 발달선별검산지 사용기간조회/검산지 서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적검사요망을 받았는데 꼭 2~3개월 지나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 38개월 남아입니다. 기질이나 성향이 같은 부모가 따로 시간을 갖는게 정서에 큰 도움이 될까요? 	- 강의자 답변 완료 및 추가 답변 예정

○ 강의별 질의응답 운영 요약

- 1강의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질문에 대한 실시간 답변이 어려웠으며, 미답변 질문은 정리 후 누리포털 부모배움터(LMS) 탑재 시 편집 영상에 추가 답변을 포함하여 제공할 예정임. 실시간 참여자에게도 미답변 질문의 후속 제공 계획을 안내함.
- 2강은 강의자가 유사하게 반복되는 질문이나 강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답변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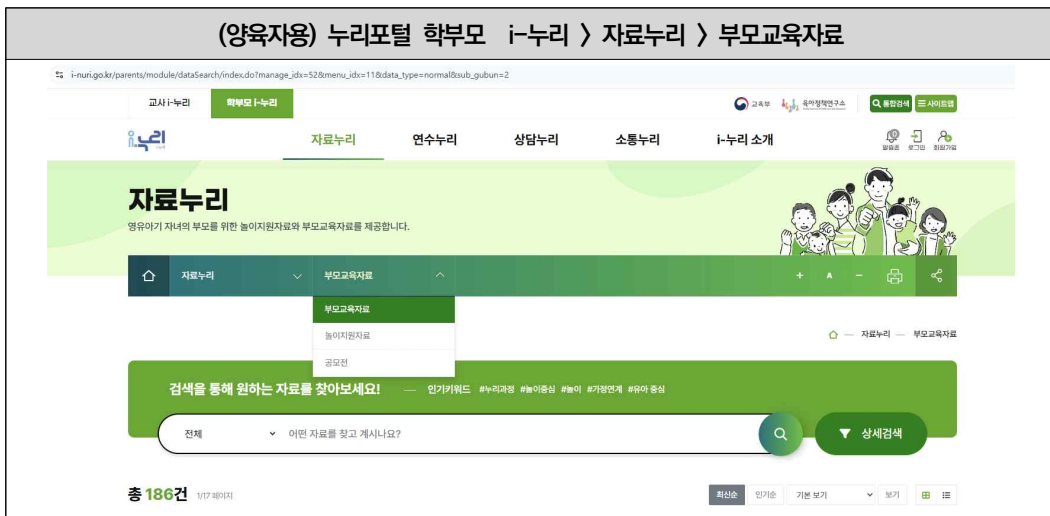
4. 향후 배포 및 활용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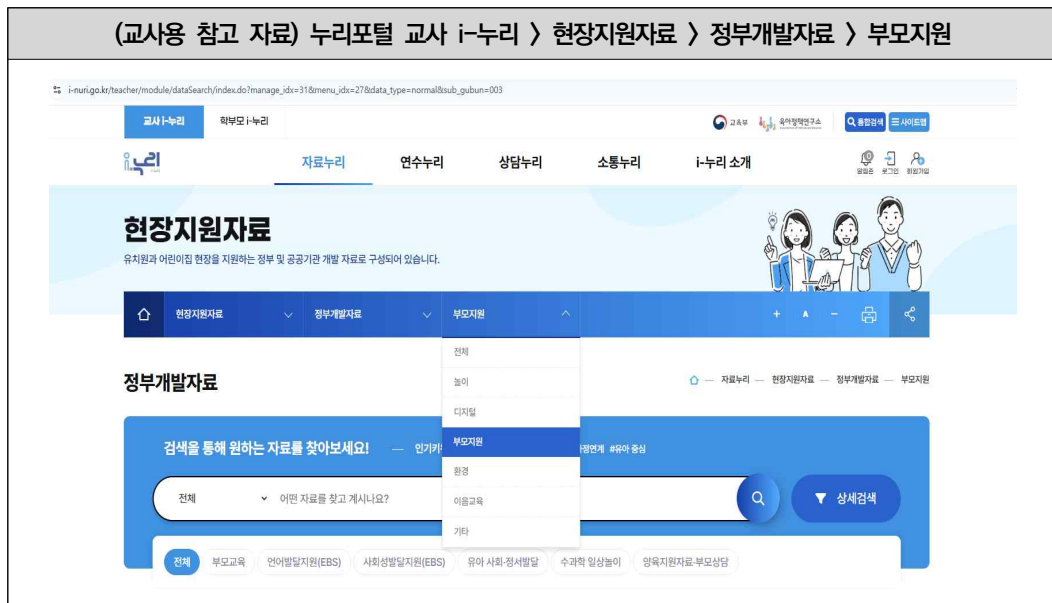
-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PDF 자료, 동영상 자료) 및 실시간 비대면 연수 편집본은 전국의 양육자와 교사, 현장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포털(i-누리) 및 i-누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자료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 자료별 게시 경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함.

가. PDF 자료 배포 계획

- 본 자료는 누리포털(<https://www.i-nuri.go.kr/main/intro.do>)에 게시하여 양육자, 교사, 전문가 등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 게시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양육자용: 누리포털 학부모 i-누리 > 자료누리 > 부모교육자료
 - 교사용 참고 자료: 누리포털 교사 i-누리 > 현장지원자료 > 정부개발자료 > 부모지원
- 공식 배포 시점은 2025년 11월 28일이며,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공식적으로 안내될 계획임.

[그림 III-4-1] PDF 자료가 탑재될 누리포털 화면





나. 동영상 자료 배포 계획

- 동영상 자료는 QR 코드를 통해 PDF 자료와 즉시 연동되며, 누리포털 (<https://www.i-nuri.go.kr/main/intro.do>)과 i-누리 공식 YouTube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임.
- 게시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양육자용: 누리포털 학부모 i-누리 > 자료누리 > 부모교육자료
YouTube i-누리 공식 채널
 - 교사용 참고 자료: 누리포털 교사 i-누리 > 현장지원자료 > 정부개발자료 > 부모지원
YouTube i-누리 공식 채널
- 동영상 자료는 PDF 자료와 동일하게 2025년 11월 28일에 공식적으로 공개 및 안내될 예정임.

(양육자용) 누리포털 학부모 i-누리 > 자료누리 > 부모교육자료

자료누리

영유아기 자녀의 부모를 위한 놀이지원자료와 부모교육자료를 제공합니다.

총 186건 1/17 페이지

(교사용 참고 자료) 누리포털 교사 i-누리 > 현장지원자료 > 정부개발자료 > 부모지원

현장지원자료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지원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 개발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개발자료

총 186건 1/17 페이지

(모든 동영상 자료) YouTube i-누리 공식 채널

i-누리

@i-nuri4875 · 구독자 2.86천명 · 동영상 2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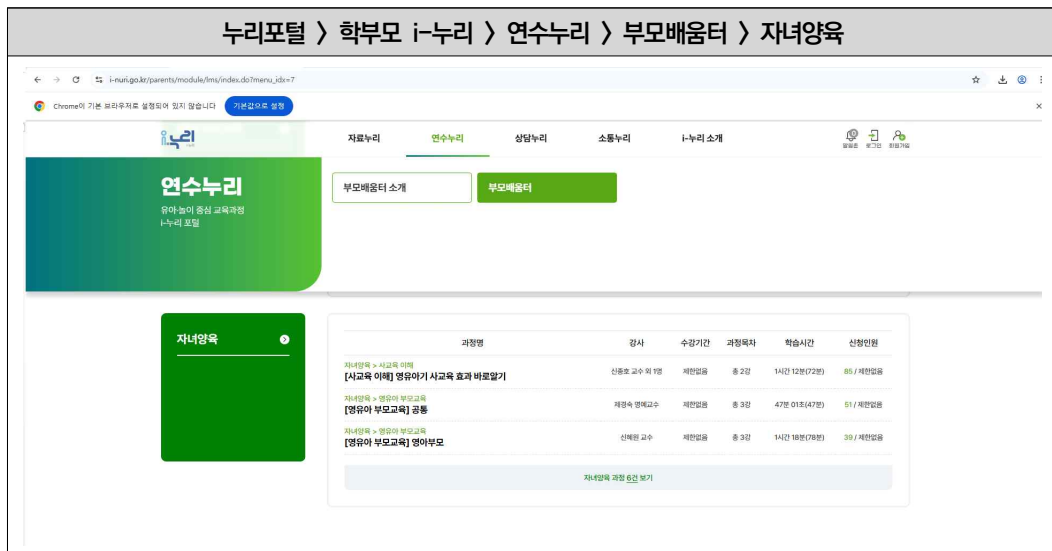
i-누리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더보기

i-nuri.go.kr

다. 실시간 비대면 연수 편집본 배포 계획

- 2025년 11월 11일에 실시된 실시간 비대면 연수(총 2회)는 편집 및 자막 삽입을 거쳐 2025년 12월 중 누리포털 학부모 i-누리의 부모배움터(LMS) ‘자녀양육’ 게시판에 탑재될 예정임.
- 연수 영상을 다시보고자 하는 양육자는 아래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음.
 - 누리포털 학부모 i-누리 > 연수누리 > 부모배움터 > 자녀양육

[그림 III-4-3] 비대면 연수 편집 녹화본이 탑재될 누리포털 화면



IV. 발달 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관련 제언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는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양육자의 양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① PDF 자료(양육자용, 교사용 참고자료), ② 동영상 자료(양육자용, 교사용 참고자료), ③ 실시간 비대면 연수(양육자 대상)를 개발하였음.
- 이를 통해 발달지원의 핵심 주체인 양육자가 보다 쉽게 정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로의 확장 필요성이 확인됨. 이에 본 장에서는 연구 수행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정책·제도적 개선 방향과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1. 정책 및 제도적 제언

- 보편적 부모교육 체계 구축 필요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지원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기보다, 모든 영유아 가정을 포괄하는 보편적 부모교육 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어야 함.
 - 특히 입문 단계(발달 문제를 처음 인식하거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시기)에서는 ‘발달 지연’, ‘위험군’ 등 명시적 표현이 부모 참여를 위축시키거나 낙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발달 이해-조기발견-가정 내 지원-정보 탐색이 자연스럽게 포함된 포용적·일상적 언어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 단, 진단, 평가, 지원 연계 단계에서는 명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며, 이 제언은 자료 접근의 ‘입문·초기 단계’에서만 표현 완화를 권장함.
 - 조기발견과 양육지원은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보편적 접근으로 출발하여 필요 시 맞춤형 심화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디지털 기반 부모교육 자료의 접근성 강화

- 누리포털 등 국가 공식 플랫폼의 검색 및 열람 기능을 강화하고,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한 유튜브 등 오픈형 플랫폼의 병행 운영을 확대해야 함.
- 조부모 등 다양한 세대의 양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PC 호환, 자막·음성 안내, 영상 병행 등 사용자 친화적 설계를 적용해야 함.
- 기관별로 분산된 자료를 중앙 통합 플랫폼에서 연계·관리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의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교사 연계형 가정지원 시스템 확립

- 부모교육이 기관 교육과 단절되지 않도록 교사용 연계자료, 가정 연계 상담 가이드라인, 부모 대화 안내문 등 실천적 지원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함.
- 어린이집·유치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현장 단위에서 교사-가정-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조기 개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의 지원은 단일 기관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의료·복지·교육 전문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역교육청, 병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조기발견-양육지원-상담-치료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연계 구조를 마련해, 양육자가 어느 단계에서도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 양육자의 심리·정서 지원 병행

- 발달 문제를 처음 인식하는 양육자는 죄책감, 불안, 우울감 등 심리적 부담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발달 안내와 함께 정서 지원, 상담 연계, 부모 자조 모임 운영이 병행되는 정책이 필요함.
- 부모교육 콘텐츠에도 자기돌봄, 마음챙김, 부모 마음 회복 메시지를 포함해, 정보 학습과 정서적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제안함.

□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화와 포용성 강화

- 영상자료는 자막, 수어, 다국어 버전 등 다양한 이용자를 포용하는 형태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시간 제약이 큰 양육자를 위해 5분 내외의 핵심 요약 영상, 숏폼, 카드뉴스, 슬라이드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시청 환경, 장치 제약이 있는 가정에서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포맷 제공(음성 파일, 텍스트 요약 등)이 필요함.

2. 본 프로그램 개발 관련 실천 제언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 확산 체계 구축

- 본 자료가 일회성 개발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확산 구조로 자리잡도록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 각 센터의 가정양육상담, 부모교육, 놀이코칭, 발달 상담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고, 지역별 특성과 운영 환경을 고려한 재구성, 활용 매뉴얼을 제공하여 실제 부모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센터 간 활용 사례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성과 파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자료의 지속적 갱신 및 확장

- 양육자와 교사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정기 업데이트 체계를 마련하고, 자료 내 QR 링크, 참고 영상, 실천 사례 등 디지털 요소의 최신성을 유지해야 함.
- 개발된 양육자용과 교사용 참고자료는 PDF 단일 형식에 머물지 않고, 현장 연수, 비대면 교육, 카드뉴스, 숏폼 영상, 인포그래픽, 가정통신문,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로 재가공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개발된 '냉장고에 착!'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자료는 양육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양육자 참여 챌린지, 실천 후기 공유, 기관별 우수사례 공모

등 참여 기반 확산 모델을 도입하여 자료의 생명력을 확장하고, 신규 콘텐츠를 순환적으로 보완·추가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함.

□ 홍보 및 활용 연계 강화

- 교육부, 지자체, 보건소, 복지관 등 공적 전달체계와 협력하여 자료의 공식 홍보 및 배포 경로를 확대해야 함.
- 검색어 최적화, 해시태그, 온라인 배너, QR 코드 활용 등 디지털 홍보 전략을 통해 양육자 접근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 기관 및 지역사회 단위에서도 자료 활용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강은진, 박진아, 김자연, 최윤경, 황혜신, 서주현, 이순행, 이남정, 김성범(2024).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
(III). 육아정책연구소.
- 교육부(2023). 2023년 특수교육 실태조사. 특수교육대상자 최초 선정·배치 시기.
- 곽희연, 김숙향, 이병인 (2022).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가족
관련 연구 동향분석: 2003년~ 2021년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
교육논총, 38(3), 119-139.
- 국립특수교육원. (2016). 장애영유아 양육 길라잡이: 발달장애 양육지식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발달지연 영유아 국가지원 종합안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건강검진통계, 2015~202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현황.
- 김경민 (2020). 발달지체 영아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가족지원에 대한 질적 탐색.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1(4), 155-189.
- 김나경, 김수진, 김은하, 김지수, 이성애, 장창현, 지석연. (2022). 틱! 톱! 행복한
우리 가족 긍정적 행동지원 가이드북.
- 김은설, 김아름, 김지현, 김희수, 전효정, 김민정, 고은경, 최일선, 김형미, 김영아,
김예진, 김용진, 최정원. (2023).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영유아 조기발
견 및 발달지원 종합 대책 방안(II): 부모용 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 김정미, 이수향 (2007). [It Takes Two to Talk]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언어발달지
체아동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행동에 미치는 효과.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2(4), 607-624.
- 김진숙 (2015). 발달장애자녀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메타종합연구. 한국심리학
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63-490.
- 김형진, 이대균 (2021). 어린이집 일반학급에서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보
육하는 보육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6(3), 1-35.
- 김혜영, 이성봉 (2018). 행동재활 서비스에 대한 장애 아동 부모의 경험과 지원
요구. 행동분석·지원연구, 5(2), 1-20.
- 나보연 (2021).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영아반 교사의 보육경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부숙, 김형욱, 박운조 (2022).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를 통한 활용방안 연구. 아동부모학회지, 8(2), 111-132.
- 백선정, 배성현, 최금순(2020).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2020- 03).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박연희, 조윤경 (2023). 장애통합어린이집 장애 영아반 특수교사 면담을 통한 학급 운영 실태 및 지원요구: 조기개입의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22(3), 5-34.
- 백은령, 이은미. (2019). 발달지연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연구 (KADD), 23(1), 21-49.
- 백지은, 이숙정 (2023). 지적장애 유아 학부모의 초등 전이 경험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 지적장애연구, 25(2), 91-120.
-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0-12개월 아기를 위한 조기개입 육아 참고서: 우리 아기 뭐하니? Retrieved from <https://kici.or.kr/product/%ec%9a%b0%eb%a6%ac-%ec%95%84%ea%b8%b0-%eb%ad%90%ed%95%98%eb%8b%88/>, 2025. 11.06 접속.
- 사단법인 한국영아발달조기개입협회 누리집. Retrieved from <https://kici.or.kr/%ed%82%a4%ec%a6%88-%ed%8c%9f/%ec%9e%a5%ec%95%a0%ea%b4%80%eb%a0%a8-%ec%a0%95%eb%b3%b4/>, 2025. 11.06 접속.
-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누리집. 발달놀이터. Retrieved from https://www.seoul-i.kr/program_play.jsp, 2025. 11.06 접속.
- 심소라 외. (2024). 특별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사례 모음.
-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16).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
-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22).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발달가이드북: 우리 아이 발달이 걱정하세요?
- 우리아이발달지원단. (2024). 제1전시실-언어발달. Retrieved from https://www.woorii114.org/SW_bbs/gallery/list.php?zipEncode==edEL91vt1drjrMCH9MyMetpSfMvWLME, 2025. 11.06 접속.
- 유정현, 정가운, 서민경 (2019). 장애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자원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 서울 북부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2), 257-270.
- 이경숙, 박진아, 조영일, 반건호, 황보람, 조성우. (2016). 발달지연 영유아의 임상

- 적 특성과 조기선별 방향: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놀이치료사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9(1), 71-101.
- 이경숙, 정빛나래, 정석진, 박진아 (2016). 2-3세 발달지연 영유아의 발달양상, 양육환경 및 임상적 특징.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2), 63-85.
- 이재상. (2025년 6월 6일).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조기선별-적기개입’ 조직·인력 배치 필요.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58>, 2025.11.06. 접속.
- 이지경, 서보순 (2021). 특수영유아 부모 관련 국내연구의 키워드 의미연결망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21(4), 71-97.
- 정보미, 김낙홍. (2016). 영아기 첫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 아동교육, 25(3), 377-393.
- 조명희, 김효정 (2021). 취학전 아동의 언어발달과 의사소통장애에 대한 교사 및 부모의 인식과 요구도. 언어치료연구, 30(4), 149-162.
- 조윤경 (2012). 발달지체 영아의 조기개입 서비스 시행 현황 및 지원 요구: 서비스 제공자 관점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6(1), 39-66.
- 조윤경 (2013).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 부모를 통해 본 장애 발견과 진단 및 조기개입 연계과정과 지원요구. 보건사회연구, 33(1), 300-326.
- 조윤경, 김수진, 송영희 (2017). 발달지체 영아 조기개입의 시행 현황과 어려움 및 지원요구: 5개 기관 유형 특수교사 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16(1), 35-64.
- 정효운, 김정민, 서현아 (2025). 경계선지능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심층면담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41(1), 365-384.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3).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나요?’ 영유아 발달검사 1부.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NiDk2Dl6HVA>, 2025.11.06. 접속.
- 한국보육진흥원. (2020).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사업).
- Children and Young People’s Health Services. Finding your way- Developmental Delay. Retrieved from <https://www.nise.go.kr/onmam/front/M0000172/media/list.do><https://www.justonenorfolk.nhs.uk/child>

- nt/M0000172/media/list.dohttps://www.justonenorfolk.nhs.uk/child-development-additional-needs/additional-needs/finding-your-way-developmental-delay/, 2025. 11.06 접속.
- Choo, Y. Y., Agarwal, P., How, C. H., & Yeleswarapu, S. P. (2019). Developmental delay: identification and management at primary care level. *Singapore Medical Journal*, 60(3), 119-123. <https://doi.org/10.11622/smedj.2019025>
- Contact(Contact a Family). (2018). Developmental delay: Information for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Retrieved from https://www.challengingbehaviour.org.uk/wp-content/uploads/2021/11/developmental_delay.pdf, 2025. 11.06 접속.
-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2020). Developmental delay: Parent easy guide. Retrieved from <https://parenting.sa.gov.au/easy-guides/development-delay-parent-easy-guide>, 2025. 11. 06 접속.
- Lopez, V., Clifford, T., Minnes, P., & Ouellette-Kuntz, H. (2008). Parental stress and coping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Journa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2), 99.
- The Royal Children's Hospital Melbourne. (2009). Developmental delay: An information guide for parents. Retrieved from <https://makingsoftrauma.com/wp-content/uploads/2016/04/Developmental-Delay-an-Information-Guide-for-Parents.pdf>, 2025. 11.06 접속.
- Queensland Government. (2024). Developmental delay or disability (child). <https://www.ccm.health.qld.gov.au/management-of-diagnosed-conditions/developmental-delay-or-disability-child>. Retrieved from <https://www.ccm.health.qld.gov.au/management-of-diagnosed-conditions/developmental-delay-or-disability-child>, 2025.11.06. 접속.

부 록²¹⁾

[부록 1] (양육자용)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췌)

[부록 2] (교사용 참고 자료)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췌)

[부록 3] (냉장고에 착!)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췌)



21) 보고서 부록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PDF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였음.
PDF 자료 전체보기는 하단 QR로 접속하면 자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함.

[부록 1] (양육자용)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체)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양육자용) -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 걸음 : 아이발달, 한 걸음 더



목차

일러두기

03

I 아이 발달 살피는 첫 신호

1. 우리 아이의 발달을 이해해요 08
발달 원리와 함께 다름과 지연을 알아보기
2. 우리 아이, 발달의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14
발달 지연의 핵심 징후
3. 아이 발달을 위한 건강검진 24
발달 선별 도구를 활용해요
4. 발달선별검사와 결과에 따른 여정 31
발달선별검사 결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까요?

II 아이 발달 돕는 양육 실천

5. 좋은 양육환경이란 무엇일까요? 39
아이 발달을 돕는 가정환경 만들기
6. 0~2세 아이를 위한 일과 중심 놀이 47
양육자의 따뜻한 돌봄과 상호작용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7. 3~5세 아이와 함께 놀이해요 57
발달을 촉진하는 즐거운 놀이 아이디어
8.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요? 64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전략
9. 의사소통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요? 71
의사소통 발달단계별 상호작용 전략
10. 우리 아이 훈육, 어떻게 할까요? 79
바람직한 행동 이끄는 3단계 훈육 원칙
11. 일과 안에서 우리 아이 발달 지원하기 86
아이 발달을 키우는 일상생활 비법
12. 마음 챙김으로 행복한 양육자 되기 89
사례로 생각해보는 양육자의 마음 돌보기
13. 행복한 가족이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 97
가족이 함께하는, 힘이 되는 양육

III 아이 발달 이끄는 똑똑한 정보

14. 아이의 기관 생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104
기관 선택과 선생님과의 협력을 위한 실천 가이드
15.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준비할까요? 113
아이와 함께 준비하는 초등학교 입학 이야기
16.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으셨나요? 124
슬기로운 정보 찾기

I

아이 발달 살피는 첫 신호

1 우리 아이의 발달을 이해해요	08
발달 원리와 함께 다름과 지연을 알아보기	
2 우리 아이, 발달의 속도를 잘 따라가고 있나요?	14
발달 지연의 핵심 징후	
3 아이 발달을 위한 건강검진	24
발달 선별 도구를 활용해요	
4 발달선별검사와 결과에 따른 여정	31
발달선별검사 결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까요?	

4

발달선별검사와 결과에 따른 여정

발달선별검사 결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까요?



발달선별검사는 보통 양육자가 응답하고, 전문가가 결과를 해석합니다.

이 장에서는 양육자가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발달선별검사의

목적과 결과 활용법을 소개합니다. 잘 참고하시면 아이의 발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무엇을 의미하나요?

① 발달선별검사 결과 해석

발달선별검사는 아이가 또래 수준으로 잘 발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제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발달선별검사 결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되며, 표현은 조금씩 달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1) 양호(양호군, 일반발달수준 등)

- ☑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 ☑ 정기적으로 발달선별검사를 받으며 성장 과정을 지켜봐주시면 됩니다.

(2) 추적검사 요망(관심군, 주의관찰필요 등)

- ☑ 일부 영역에서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어요.
- ☑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약 2~3개월 후 재검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심화평가 권고(주의군, 추가평가권고 등)

- ☑ 발달이 또래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어요.
- ☑ 전문가의 정밀 평가가 필요합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에 따른 지원 방법

발달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양육자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다음 그림은 결과 유형별 의미와 그에 따른 양육자의 역할 및 후속 조치 방법을 정리한 도표입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에 따른 대응 전략 요약



출처: ASQ-3 Workflow Map을 수정하여 작성함.

① 양호(양호군, 일반발달수준 등)

아이의 발달이 전반적으로 또래 수준이어서 별도의 전문적 지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달이 건강하게 이어지도록 일상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꾸준히 해주세요. 함께 놀이하고, 아이의 감정과 행동에 세심하게 반응하며, 격려와 관심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아이의 발달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 별첨: 냉장고에 책! '양호' 결과 요약 안내지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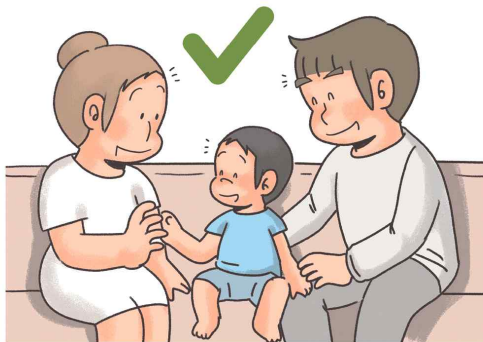
'양호'가 나왔다면?

발달선별검사에서 아이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더는 발달선별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양육자는 검사 문항이 단순해 보이거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 검사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달선별검사는 아이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 또래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제때 살피려는 도구입니다. 문항이 단순한 이유도 **작은 이상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아이의 발달이 늘 일정하지는 않기에 잘 자라던 아이가 잠시 늦어지거나 어려움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발달선별검사를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안정적인 상호작용과 일관된 양육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함께 놀고 따뜻하게 교감하며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때, 아이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며 안정적으로 발달해나갈 수 있습니다.



결과안내지
바로가기

따뜻한 양육과 정기적 선별 검사로 건강한 발달을 이어가요.

② 추적검사 요망(관심군, 주의관찰필요 등)

아이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양호에 가깝지만, 일부 발달 영역에서 또래보다 조금 느린 부분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양육자는 아이의 행동과 발달을 꾸준히,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기간 후(예: 2~3개월) 재검사를 받아 아이의 발달 변화를 확인해주세요.

* 별첨: 냉장고에 책 '추적검사 요망' 결과 요약 안내지를 참고하세요.

'추적검사 요망'이 나왔다면?

발달선별검사서에서 일부 항목이 또래보다 조금 늦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사나 양육자의 평소 염려와 일치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상담 결과 실제로 발달 지연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전문적 지원과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조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호' 결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일관된 양육 환경을 꾸준히 유지하면 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나온 영역을 일상적인 놀이와 상호작용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원한다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별히 걱정되는 점이 없다면, 전문가 상담을 잠시 미루고 **약 2~3개월 후 발달선별 검사를 다시 받아** 아이의 발달 변화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결과안내지
바로가기

꾸준히 살피고 2~3월 후 재검사로 발달을 확인해요.

③ 심화평가 권고(주의군, 추가평가권고 등)

발달선별검사 결과, 아이의 발달이 또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의 심화평가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실제 발달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진단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첨: 냉장고에 책! '심화평가 권고' 결과 요약 안내지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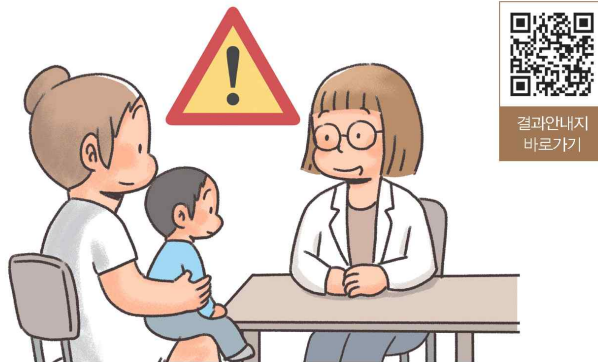
'심화평가 권고'가 나왔다면?

발달선별검사서에서 '심화평가 권고'가 나온 것은 일부 발달 항목이 또래보다 낮게 나타나 더 자세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전문가의 심화평가**를 바탕으로 아이의 현재 발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심화평가 결과, 추가 지원 없이 경과 관찰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기에 개입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진단 결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평가나 치료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때 개입은 기관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정과 일상에서 이어질 때** 효과가 큼니다. 예를 들어, 언어 발달이 필요하다면 언어치료와 함께 가정에서 관련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상호작용을 늘려주세요. 감각운동 발달이 필요하다면 놀이 속에 치료 요소를 녹여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되실 수 있지만, 아이의 지금 발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택입니다.



미루지 말고,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세요.

Q & A

Q&A로 알아보는 양육자 작성 발달 선별 도구

양육자가 작성하는 발달선별검사 결과, 신뢰할 수 있나요?



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영유아 발달 선별 도구는 양육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자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문제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실제 진단에서 발달 문제가 확인된 비율이 약 9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양육자의 관찰과 염려가 매우 신뢰할 만한 조기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 본 사람으로서, 양육자는 아이의 발달과 행동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의 없이 작성하거나 '잘 모르겠음'을 많이 선택하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와 충분히 상호작용 해왔다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아이의 발달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양육자와 교사가 함께 작성했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교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어려움을 관찰했지만 양육자는 염려가 없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상황에서 아이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염려가 있지만 기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일상 구조나 양육 방식 등을 나누어보며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아이의 발달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방향을 논의해보세요.

출처: Chul Hoon Jang, Seong Woo Kim, Ha Ra Jeon, Da Wa Jung, Han Eol Cho, Jiyong Kim, Jang Woo Lee, Clinical Usefulnes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K-DST) for Developmental Delays,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2019; 43(4): 490-496.

발달선별검사 결과는 아이의 현재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아이의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II

아이 발달 돕는 양육 실천

5	좋은 양육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아이 발달을 돕는 가정환경 만들기	39
6	0~2세 아이를 위한 일과 중심 놀이 양육자의 따뜻한 돌봄과 상호작용으로 세상을 이해해요	47
7	3~5세 아이와 함께 놀이해요 발달을 촉진하는 즐거운 놀이 아이디어	57
8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요? 사회-정서 발달을 돕는 상호작용 전략	64
9	의사소통 발달을 위한 상호작용, 어떻게 할까요? 의사소통 발달단계별 상호작용 전략	71
10	우리 아이 훈육, 어떻게 할까요? 바람직한 행동 이끄는 3단계 훈육 원칙	79
11	일과 안에서 우리 아이 발달 지원하기 아이 발달을 키우는 일상생활 비법	86
12	마음 챙김으로 행복한 양육자 되기 사례로 생각해보는 양육자의 마음 돌보기	89
13	행복한 가족이 행복한 아이를 키운다 가족이 함께하는, 힘이 되는 양육	97

5

좋은 양육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아이 발달을 돕는 가정환경 만들기



가정환경은 아이의 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발달을 도우려면 우리 집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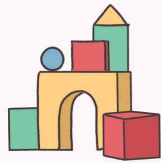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가정에서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우리 집 환경 점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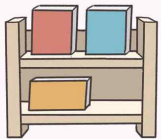
우리 집은 아이에게 어떤 환경일까요?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 발달을 돕는 요소를 점검해 보시다.

놀이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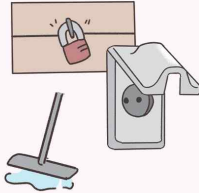
- ☒ 아이가 즐겨 노는 놀잇감이 있다.
- ☐ 아이의 발달단계에 맞는 놀잇감이 있다.
- ☐ 놀잇감은 아이가 혼자서 꺼내거나 찾기 쉽게 보관되어 있다.
- ☐ 아이가 놀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놀잇감이 잘 정리되어 있다.
- ☐ 아이가 어지르는 것을 인정하며 충분히 놀도록 해준다.

언어 및 정서적 환경



- ☒ 하루 중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을 건네거나 대화하는 시간이 충분하다.
- ☐ 웅얼이 단계라면 아이가 내는 소리나 몸짓을 의사소통처럼 반응해준다.
(예: 웅얼이를 할 때 “오, 그래?”라고 말로 대답해주기)
- ☐ 아이가 말할 때 중간에 가로채서 대신 말해주거나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
- ☐ 아이의 감정을 읽고 적절한 말로 표현해준다.
(예: 울 때 “아유, 속상하구나.” 등으로 표현하기)
- ☐ 책꽂이에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 고르기 쉽게 꽂혀 있다.
- ☐ 매일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분위기에서 책을 읽어준다.

안전 및 환경



- ☒ 위험한 물건은 아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한다.
(예: 서랍 잠금장치 활용 등)
- ☐ 아이가 기어다니거나 눕는 바닥이 청결하게 유지된다.
- ☐ 입에 넣는 물건(놀잇감, 젖병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한다.
- ☐ 기저귀, 손, 입 주위 등이 깨끗한지 자주 살핀다.
- ☐ 문틈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문 닫힘 방지 고정장치를 부착해두었다.
- ☐ 가구 모서리 보호대, 콘센트 덮개 등 안전장치가 있다.
- ☐ 창문이나 베란다 문은 아이가 혼자 열지 못하게 잠겨 있다.

일상생활



- ☒ 아이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 ☐ 밥을 먹을 때는 제자리에 앉아서 먹도록 지도하고 있다.
-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라도 스스로 해볼 기회를 준다.
(예: 바지를 엉덩이까지만 올려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올려보기 등)
- ☐ 3세 이상 아이라면 수건, 칫솔, 양말, 속옷 등을 스스로 꺼낼 수 있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꺼내어 쓰도록 격려한다.
- ☐ 가능하면 간단한 일이라도 가족을 돕는 일(예: 간단한 심부름하기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



- ☒ TV 등은 꼭 필요할 때만 시청하고 스마트 기기는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0~2세 아이에게는 가능한 한 화면 노출을 피한다).
- ☐ 아이 앞에서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이나 영상물 시청보다 신체활동이나 가족과 놀이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
- ☐ 우리 아이는 미디어 없이도 혼자 놀이에 몰입하는 시간이 있다.

아이의 발달을 돕는 환경 구성하기

①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준비해요

즐거워 놀이는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는 힘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마련해두면 더 즐겁게 놀이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tip

놀잇감을 어떻게 선택할까요?

- ✓ 아이의 현재 발달단계에 맞는 놀잇감을 골라주세요.
- ✓ 아이는 화려한 놀잇감보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를 더 좋아해요.
- ✓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예: 냄비, 상자 등)이 더 좋은 놀잇감이 될 수 있어요.
- ✓ 익숙해진 놀잇감을 잠시 치워두었다가 다시 꺼내면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 ✓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예: 장난감 도서관 등)를 이용하면 소액의 연회비*를 내고 다양한 놀잇감을 대여할 수 있어요.

* 다자녀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복지카드를 소지한 가족 등은 연회비가 면제되기도 함.



한 걸음 더

연령별 추천 놀잇감

① 0~1세 감각과 움직임을 즐기는 시기

- 처음엔 입에 넣고 빨면서 놀다가 점차 만지고, 흔들고, 던지고, 소리를 듣고, 작은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어보면서 노는 것을 좋아해요.
- 환경 호르몬, 날카로운 모서리, 삼킬 수 있는 작은 물건 등 안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추천 놀잇감

오목이, 형견책, 촉감 볼, 소리 나는 딸랑이, 거울, 공 등

놀잇감 더하기

손가락으로 집을 수 있는 밥풀과자, 바닥에 붙어 있는 테이프, 끈, 뽑을 수 있는 티슈, 만질 수 있는 밀가루 또는 밀가루 반죽, 물건을 넣어놓고 찾을 수 있는 상자나 통 등

한 걸을 더

연령별 추천 놀잇감

② 1~2세 조작하고 만드는 것을 즐기는 시기

- 쌓고 끼우고 빼고 만드는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 물건의 기능을 익히면서 놀이에 활용하기 시작해요
(예: 악기 두드리기, 빗으로 머리 빗는 흉내 내기,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기, 컵으로 양육자와 "짹" 소리 내며 부딪치기 등)



추천 놀잇감

끼우기 쉬운 블록, 쌓을 수 있는 컵, 자를 수 있는 과일 모형이나 부엌놀이 칼, 공, 모래놀이 도구, 팝업북 등

놀잇감 더하기

못 쓰는 냄비나 그릇, 뚜껑, 무언가를 넣고 뺄 수 있는 빈 과자 통, 고장 난 전화기,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물건을 숨길 수 있는 작은 통, 만들거나 자를 수 있는 밀가루 반죽 등

③ 3~5세 상상하며 놀거나 또래와 놀기 시작하는 시기

- 이전에 가지고 놀던 놀잇감을 더 유능하게 활용해서 놀아요.
(예: 인형을 안고 놀다가 커가면서 인형을 환자로 상상하며 병원놀이 하기)
- 또래와 노는 것을 즐기고 친구와 상호작용 하며 사회성과 의사소통 기술이 발달해요.
- 놀잇감이 없어도 상상하며 놀 수 있어요.
- 단순한 규칙이 있는 보드게임이나 전래 놀이 (쌀보리, 손뼉치기 놀이 등), 규칙이 있는 집단 놀이 (예: 술래잡기, 숨바꼭질 등)를 할 수 있어요.



추천 놀잇감

블록, 부엌놀이 세트, 병원놀이 세트, 다양한 미술 도구(색연필, 종이, 점토 등), 유아용 보드게임, 인형, 공, 유아용 스포츠 도구 등

놀잇감 더하기

놀잇감 없이 친구와 노는 놀이, 다양한 전래 놀이 (대문놀이, 딱지치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건, 종이, 폐품 등

② 놀잇감을 스스로 꺼내어 놀 수 있도록 보관해요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놀잇감을 스스로 선택하고 혼자서 꺼내어보는 경험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양육자 tip

놀잇감을 어떻게 보관할까요?

- ✓ 놀잇감을 종류별로 나누어 담으면 아이가 스스로 찾기 쉬워요.
- ✓ 놀잇감을 아이 스스로 꺼낼 수 있는 높이에 보관해요.
- ✓ 책은 책등보다는 책 표지가 보이는 형태로 책꽂이에 보관하면 쉽게 고를 수 있어서 좋아요.



③ 아이가 스스로 해보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해보는 과정에서 아이는 한 걸음씩 성장합니다. 스스로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정환경을 만들고 스스로 해볼 기회를 주세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자라나고, 책임감과 독립심도 함께 높아집니다.



양육자 tip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할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 ✓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해주세요.
수저 놓기, 간단한 심부름하기 등 가족을 도울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 ✓ 처음엔 일부를 해보는 기회를 준 다음 점차 혼자 해보는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예: 신발을 신겨주면 아이가 짹짹이를 붙이도록 해주기)



- ✓ 혼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예: 올라서서 세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받침대 두기, 칫솔을 꺼내기 쉬운 곳에 두기, 아이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수건 두기, 펌프형 치약을 두어 아이가 혼자서 치약을 짜 수 있게 하기 등)



- ✓ 스스로 해낸 것을 칭찬해주세요.

④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여요

아이의 발달을 도우려면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 노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영유아기에 자주 미디어에 노출되면 사회성 발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아이 혼자 화면을 보는 시간보다 양육자와 함께 놀이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충분히 상호작용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양육자 tip

이미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영유아기에는 사람, 자연과 접촉하면서 발달합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 있더라도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산책이나 바깥놀이 등 다양한 야외활동을 하여 스마트폰을 보기보다는 아이와 눈 맞추고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세요.
- ✔ 양육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디지털 휴식을 실천해주세요.
- ✔ 아이가 스마트폰을 볼 때는 혼자 보지 않게 하고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시청**하게 합니다.
- ✔ 평소애 책을 많이 읽어주어 책과 친해지도록 하고 **이동하거나 외출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가서** 스마트폰 대신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는 스마트 기기 사용 원칙

✔ 0~1세

- ✧ 영상물이나 스마트폰 보여주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 ✧ 양육자와 상호작용 하며 놀이하고 따뜻한 신체 접촉으로 교감하는 것이 중요해요.

✔ 1~2세

- ✧ 가능한 한 스마트 기기 사용을 피하고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도록 해요.
- ✧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짧게 시청해요.

✔ 3~5세

- ✧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한 가족 약속을 정해요(예: 사용 시간 정하기).
- ✧ 스마트 기기 사용 장소를 정하는 것도 좋아요(예: 거실에서만 사용하기).
- ✧ 아이 혼자 보기보다 양육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보는 것이 좋아요.
- ✧ 사용 시간은 한 시간을 넘기지 않아요.

WHO에서 권장하는 영유아 스마트폰 사용 기준

0~1세

스크린 타임 금지

스마트폰, TV, 태블릿 등 모든 전자 화면 노출을 피할 것

1~2세

가능한 한 스크린 사용을 피할 것

꼭 필요한 경우, 부모와 함께 할 것

2~4세

스크린 타임 하루 1시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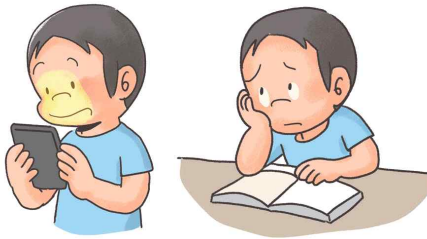
반드시 부모와 함께 사용!

한 걸음 더

팝콘브레인과 퍼빙(phubbing)

✓ 팝콘브레인이란 무엇인가요?

팝콘처럼 툭툭 튀는 디지털의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가 현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느리고 단순한 현실의 자극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요?

- 영유아기에는 언어발달 지연, 주의력 결핍, 사회성 및 정서 발달 저해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책 읽기, 놀이,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져요.
- 집중력이 감소하여 학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기다리는 상황 등에서 짜증, 불안,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 퍼빙이란 무엇인가요?

‘퍼빙(Phubbing)’은 ‘Phone(전화기)’과 ‘Snubbing(무시하다)’을 합친 말이며, 스마트폰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대화를 소홀히 하게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양육자가 스마트폰에 너무 집중하면 아이의 시선이나 말, 몸짓 같은 상호작용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의 애착 형성이나 의사소통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퍼빙 관련
유튜브 영상

III

아이 발달 이끄는 똑똑한 정보

14 아이의 기관 생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기관 선택과 선생님과의 협력을 위한 실천 가이드	104
15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이와 함께 준비하는 초등학교 입학 이야기	113
16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으셨나요? 슬기로운 정보 찾기	124

초등학교 입학, 어떻게 준비할까요?

아이와 함께 준비하는 초등학교 입학 이야기



초등학교 입학 앞둔 우리 아이

대견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교생활을 설레며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걱정 대신 기대와 뿌듯함으로 대해주세요. 양육자의 불안과 걱정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학교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학교생활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안내 영상 함께 보기

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규모가 크고 화장실 위치, 급식실 등 환경이 달라서 아이가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안내 영상을 보면서 학교를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내 영상

초등학교 미리 가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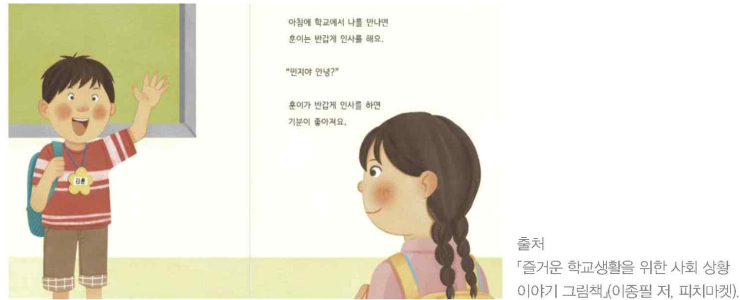
학교를 미리 가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등굣길을 함께 걸으면서 등교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장과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고, 학교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교 내부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책 함께 읽기

초등학교 생활을 안내하는 그림책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 학교생활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책에서 본 장면을 역할놀이로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예: "친구야, 안녕!" 하고 말해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독립성을 키워주세요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화장실 가기, 밥 먹기, 옷 입기, 신발 신기 등 일상생활 기술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를 미리 가봐요

예비소집일이나 입학식 등 학교를 미리 방문할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등굣길 익히기

- ☑ 학교 가는 길 알아보기
- ☑ 건물목 건너가기
- ☑ 위험한 곳이나 조심할 곳 알아보기

학교 화장실 가보기

-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화장실과 다른 점 살펴보기
(예: 학교 화장실은 문을 닫고 나만 들어간다.)
- ☑ 화장실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미리 살펴보기
- ☑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익히기
- ☑ 필요하다면 입학 때 담임선생님과 상의하기

학교 사진이나 영상 찍어보기

- ☑ 학교에 어떤 곳이 있는지 둘러보기
- ☑ 집에서 학교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조금 더 친숙해지기

🔗 화장실 사용의 독립성 키우기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옷 내리고 올리기, 변기 물 내리기, 휴지를 사용해서 닦기 등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바지를 혼자서 올리고 내리기 어렵다면 처음에는 바지를 반만 입혀주고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올리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을 청하는 표현 익히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때까지 필요하다면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특히, 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화장실이 교실에서 떨어져 있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지 못해 실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변을 잘 가리는 아이라도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도록 연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수를 대비해서 입학 후에는 **사물함에 여벌옷**을 넣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식판과 젓가락 사용하기

초등학교에서는 **배식대에서 자기 자리까지 식판을 들고 이동하며 젓가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반찬을 옮기는 등 식사 준비를 돕거나 젓가락 사용을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안에 식사하기, 최소한 반찬을 한 번씩은 먹어보면서 편식 습관 줄이기 등을 지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 그 밖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술 중 **혼자 옷 입기 벗기, 옷을 옷걸이에 걸어 정리하기, 가방에 필요한 물건을 넣거나 꺼내기, 우유 팩 열고 마시기, 실내화 갈아신기** 등은 가정에서 연습해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연습하면서 아이가 스스로를 조금 더 뿌듯하게 느끼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키워요

학교생활에서 독립성을 키우려면 가정에서도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키우도록 다음의 것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을 스스로 해보기

- ☑ 혼자서 화장실 뒤처리 연습해보기
- ☑ 혼자서 옷 입고 벗기
- ☑ 혼자서 신발 신고 벗기
- ☑ 숟가락, 젓가락 등 식사 도구 사용하기
- ☑ 우유 팩 열고 우유 마시기

도움을 청하는 표현 익히기

- ☑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 연습하기
- ☑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도록 연습하기

가족을 돕는 역할 수행하기

- ☑ 식사 준비를 위해 수저, 그릇 등을 옮기기
- ☑ 빨래 정리하기: 옷걸이에 옷을 걸어 정리하기 등
- ☑ 청소도구를 사용해서 청소해보기: 책상 닦기, 빗자루와 쓰레받기 사용해보기
- ☑ 분리수거 해보기
- ☑ 간단한 심부름 해보기

한글 떼기보다 배움을 즐기는 마음이 중요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수업 시간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함께 그림책 읽기

학습지로 글자를 먼저 배우면, 아이는 글자를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공부는 재미없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양육자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글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도록 도와주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는 과정에서 글자에 호기심이 생기고,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여 집중하는 능력도 함께 자라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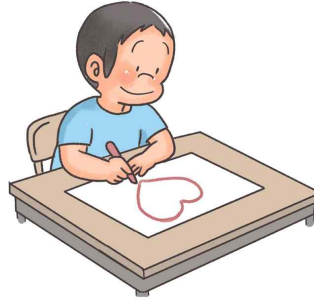
매일 함께하는 그림책을 읽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입학 준비입니다.



☞ 책상과 의자에 앉아 재미난 활동 하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좌식 생활에 익숙한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의자에 오래 앉아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입학 전 책상과 의자에 친숙해지도록 책상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책상과 의자에 억지로 앉혀두면 '책상은 지루하고 힘든 곳'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같은 놀이를 책상에서 함께하며 '앉아서 하는 활동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움을 즐기는 마음을 키워요

가족과 함께 그림책 읽기

- ☞ 아이 스스로 좋아하는 책을 고르도록 하기
- ☞ 여러 책 중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책을 두 권 보여주고 하나를 고르도록 연습하기
- ☞ 같은 책을 반복해서 골라도 “재미있겠다.”라고 인정해주며 읽어주기
- ☞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글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목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기
- ☞ 책의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 하지 않기(예: 나비 어디 있어? 이거 무슨 색이야? 등)
- ☞ 유튜브나 영상보다 책 형태로 동화 읽어주기

학교에서의 학습 준비하기

- ☞ 책상에 앉아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하기
- ☞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을 아이와 함께 사기
- ☞ 학교에 가져갈 가방을 아이와 함께 정리하기

글자와 친해지기 위한 활동 하기

- ☞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함께 읽기
- ☞ 마트에 가기 전에 사고 싶은 과자 이름을 쓰며 메모하기
- ☞ 좋아하는 친구의 이름을 읽고 써보기
- ☞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이름을 읽고 써보기
- ☞ 가족들이 써준 편지나 카드, 쪽지 읽어보기
- ☞ 생일 초대 카드 써보기

Q & A

Q&A로 알아보는 "즐거로운 초등 학부모 생활"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정과 소통합니다.

첫째, 가정통신문으로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중요한 학교 행사와 가정에서 알아야 할 교육 내용을 안내합니다. 요즘에는 종이로 된 가정통신문 외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클래스팅, 하이클래스 등과 같은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채팅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온라인 소통 플랫폼은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되므로 양육자는 학교의 주요 공지 사항과 안내장 등을 인터넷상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알림장으로 소통합니다. 그러나 1학년은 아직 글자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아 알림장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학교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한 연락은 아이들을 위한 수업 준비와 학교 업무를 오히려 방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소통 방법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 입학을 늦추는 게 좋을까요?



간혹 아이가 또래보다 발달이 느릴 때 입학을 1년 늦춘 후 조금 더 발달한 뒤에 학교에 보낼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입학을 늦추기보다 제 나이에 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1~2년 더 머무르며 얻는 이득보다 같은 나이 친구들과 생활하며 성장하는 경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같이 생활한 친구들과 함께 입학하면 학교 적응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입학을 늦추면 치료지원비나 교육비 등 일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 등의 문제로 입학을 늦추려고 해요.



모든 보호자는 6세가 된 아이를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합니다. 다만, 때로는 건강이나 기타 여건으로 입학을 늦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방법은 시기와 사유에 따라 **취학유예**와 **입학연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렵다면 **취학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학유예는 입학할 해의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배정받은 초등학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취학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정된 초등학교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아이의 입학을 1년 늦추고 싶다면 **입학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연기는 입학 전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1년만 가능합니다. 다음 해에도 입학할 연기하고 싶은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입학을 1년 늦추고 싶다면 입학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입학연기는 입학 전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최초 1년만 가능합니다. 차년도에도 입학할 연기하고 싶은 경우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필요 서류나 세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정된 초등학교**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운영합니다. 1학년 입학 후에는 학교 생활 적응과 한글 해득 교육 등을 진행하며, 학기 초에는 기초조사서(학교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음)를 통해 **아이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또 3월에는 1학년 수업 활동으로 **화장실 가기, 급식실 가기, 학교 공간 익히기** 등 학교 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학교 준비를 돕는 '이음교육'을 시행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스스로 경험해보면서 적응하고 독립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시간에 아이가 소근육이 덜 발달해서 젓가락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포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먹되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이기도 하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원받고 싶어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원받으려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배치를 위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초등학교 배치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만 9세까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아도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치료지원, 가족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내에서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생활하고, **특수학교**는 반별로 각각 특수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은 또래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되며, 특수학교는 장애 특성 및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실생활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 적합할지는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 특성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학 거리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초등 특수학급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다면 인근 학교 특수학급으로 배치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미리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특수학급이 과밀(즉, 법정 정원을 초과한 경우)이라면 다른 학교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특수학교 입학 원하는 아이가 많은 때는 학교에서 따로 학부모 상담이나 학생 관찰평가 등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무엇인가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생의 개별 특성에 따라 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을 **개별화교육계획(IEP)**이라고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거쳐 구성하며 보호자도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에서는 교육 목표나 교육 내용 외에도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과 관련 서비스 등도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바쁘더라도 꼭 참여하여 선생님과 정보를 나누면 아이의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을 받고 싶어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이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과 학교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특수교육실무사, 지도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립니다.

이 외에도 자원봉사자나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조인력이 배치되기도 하며 지원 필요 여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받을 때 의논하거나 특수교사와 의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아이의 독립성을 키워주거나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를 권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 여부는 교사와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생활이 궁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초등학교 생활이 궁금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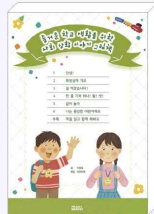


초등학교 1학년의
교육 내용이 궁금할 때



초등학교 생활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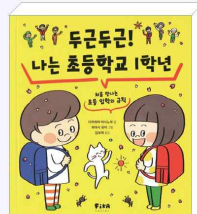
아이와 함께 초등학교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읽어볼 수 있는 자료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회 상황 이야기 그림책 세
트
이종필 저, 피치마켓



학교는 즐거워
해리엇 지퍼트 저자(글),
이태영 번역,
아만다 헤일리 그림/만화, 키
다리



두근두근!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다카하마 마사노부 저자(글),
하야시 유미 그림/만화,
김보혜 번역, 키다리

어리긴 하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어리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 해줄게.”가 아니라

아이에게 “네가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라고 믿어주시면

아이들은 그 믿음만큼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교사에게도 주시면 좋겠어요. 교사도 학부모님과 목표가 같잖아요.

아이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교육 동반자로 믿음과 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OO초등학교 전성하 선생님 인터뷰 중에서

출처: 개정 누리과정에 기반한 유·초·유·초 이음교육지원자료
<https://l-nuri.go.kr/data/board/87/2156/20230209081726uzef.mp4>

[부록 2] (교사용 참고 자료)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체)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교사용 참고 자료)-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 걸음 : 아이발달, 한 걸음 더



목차

일러두기	03
-------------	----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06
---	----

교사를 위한 발달 선별 이해와 활용

2. 양육지원, 교사는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요?	17
-------------------------------------	----

발달이 느린 아이를 위한 양육지원 지침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가정 연계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교사용 참고 자료]





교사는 아이들의 발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또래와 비슷하게 발달하지만, 때로는 다른 발달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달선별검사는 발달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발달 선별의 중요성과 교실에서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결과를 양육자와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발달 선별의 이해

❶ 발달 선별이란 무엇인가요?

1) 발달 선별의 목적

발달 선별은 아이의 발달 상태를 살펴, **또래보다 늦거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기에 확인**
하는 과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검사나 발달 지원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2) 발달 선별이 중요한 이유

많은 나라에서 발달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
인 발달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 건강검진에 발달 선별이 포함되어, 모든
0~5세 아이에게 검진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자가 질문지에 응답하지만, 기관에서는
교사가 직접 실시하여 교실에서 나타나는 발달 모습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교사가 알아야 할 발달 선별의 특징

발달 선별은 의료진이 아니라 양육자나 교사가 아이를 관찰해 작성하는 검사입니다. 도구는 간
단하고 명확하며,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
므로, 결과만으로 발달 지연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달 선별의 목적은 아이의 발달에서 나타나
는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Q & A

Q&A로 알아보는 양육자 작성 선별 도구

양육자가 작성하는 발달선별검사 결과, 신뢰할 수 있나요?



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영유아 발달 선별 도구는 양육자가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육자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문제 있음'으로 표시한 경우, 실제 진단에서 발달 문제가 확인된 비율이 약 9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양육자의 관찰과 염려가 매우 신뢰할 만한 초기 신호임을 보여줍니다.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양육자는 아이의 발달과 행동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의 없이 작성하거나 '잘 모르겠음'을 많이 선택하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평소 아이와 충분히 상호작용 해왔다면,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교사가 함께 작성했는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교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아이를 관찰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쪽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어려움을 관찰했지만 양육자는 염려가 없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관련 상황에서 아이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염려가 있지만 기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일상 구조나 양육 방식 등을 나누어보며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아이의 발달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절한 지원 방향을 논의해보세요.

출처: Chul Hoon Jang, Seong Woo Kim, Ha Ra Jeon, Da Wa Jung, Han Eol Cho, Jiyong Kim, Jang Woo Lee, Clinical Usefulnes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K-DST) for Developmental Delays,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2019;43(4):490-496.

② 교사에게 발달 선별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교사는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행동, 언어, 감정 표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입니다. 일상적인 반응을 꾸준히 관찰하기 때문에 발달의 흐름이나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 발달 선별은 교사의 관찰을 '근거 있는 판단'으로 바꿔줍니다.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발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양육자와 공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발달 선별 도구는 이러한 관찰을 구조화하여, 아이가 또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지, 더 살펴봐야 하는지, 전문 평가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3) 양육자와 신뢰 있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발달은 민감한 주제지만, 선별 결과는 교사의 설명에 신뢰를 더해줍니다. 구체적인 결과에 기반해 논의할 수 있으므로 양육자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연계도 설득력 있게 이루어집니다.

한 걸음 더

발달 이정표로 볼까, 발달 선별 도구로 확인할까?

✓ 발달 이정표는 관찰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교사는 일상에서 아이의 발달을 꾸준히 관찰합니다. 이때 발달 이정표는 연령별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발달 행동을 제시해주므로 '지금 시기에는 어떤 행동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가'를 파악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별 관찰 기록을 정리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발달 이정표만으로는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발달 이정표는 자료마다 제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판단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자료는 50%의 영유아가 도달한 시점을, 또 어떤 자료는 75% 이상 영유아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 아이가 특정 항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발달 지연이라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 발달 선별 도구로 아이의 발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이 시기라는데 우리 반 아이는 이런 행동이 안 보이네?" 하고 발달 이정표에서 빠진 항목이 여러 개라면, 발달 선별 도구를 활용해 발달 상태를 구조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달 선별 도구는 영역별 발달 상태를 점수화하여, 아이가 또래 수준에 있는지, 추가 관찰이 필요한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발달 이정표는 '관찰용!', 발달 선별 도구는 '확인용'!

3 무엇을 선별할 수 있나요?

1) 전반적 발달 영역

전반적 발달 선별은 여러 발달 영역을 나누어 관찰하되, 이러한 발달 상태를 포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각 영역 간의 연결성과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아이의 발달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전반적 발달 선별의 개념

전반적 발달 선별은 **아이가 연령에 맞게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대근육 운동(걷기, 뛰기 등), 소근육 운동(쥐기, 끼우기 등), 인지(생각하고 문제 해결하기), 언어(이해와 표현), 사회정서(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 맺기), 자조(스스로 먹고 입기 등 일상생활 수행) 등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각 영역은 따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능력은 또래와 상호작용 하면서 발달하는 사회정서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대근육이 발달하면 아이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을 탐색해 인지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교사는 한 가지 영역만 따로 떼어서 보지 말고,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흐름을 함께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영역	발달내용
 대근육운동	팔과 다리, 고개, 몸통 등을 움직이는 행동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공 던지기 등
 소근육운동	팔과 손, 손가락을 사용하는 미세한 운동, 사물 조작 능력 연필 잡기, 블록 쌓기, 가위로 오리기 등
 인지	문제해결·사고 능력 수 개념, 도형 알기, 사물의 용도 이해 등
 언어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 웅얼이, 단어 또는 문장 말하기 등
 사회·정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정서 조절 눈 맞춤, 공동주의, 모방, 인사하기, 놀이하기 등
 자조	환경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용변 처리, 옷 입기, 식사하기, 정리하기 등

(2) 발달 선별 도구의 예

①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는 국가에서 개발한 기본 발달선별 도구이며, 국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용됩니다.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71개월)에 걸쳐 정기적인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의 여섯 가지 주요 발달 영역으로 구성되며, 작성 시간은 10~15분 정도입니다. 검사 결과는 '빠른 수준', '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의 네 단계로 산출되고,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결과지에는 '빠른 수준'과 '또래 수준'을 통합해 '양호'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양육자가 실제로 받는 결과는 '**양호**', '**추적검사 요망**', '**심화평가 권고**'의 세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발달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 Korean Screening Index for Early Development)는 생후 12개월부터 만 5세까지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확인하는 선별 도구입니다. 이 검사는 **부모용(K-SIED:P)**과 **교사용(K-SIED:T)**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과 기관에서의 관찰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용 도구는 보육 및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를 자연스럽게 관찰하며,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이의 발달상 어려움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가 영역은 **대근육·소근육 운동, 인지, 수용표현 언어, 사회정서, 자조**로 구분되며, 교사는 이를 등하원, 대소집단 활동, 자유 놀이, 바깥 놀이, 급간식, 낮잠·휴식, 전이(손 씻기, 배변, 기타)와 같은 일과 속에서 관찰해 기록합니다. 검사 결과는 '**양호군**', '**관심군**', '**주의군**'의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주의군'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 상담 및 추가 평가로 연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2) 사회정서행동 발달 선별 영역

“또래와 자주 부딪히거나,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위축된 아이도 있지요.”

이런 모습은 교실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단순한 기질인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변화인지, 아니면 조기 지원이 필요한 신호인지 교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행동 발달 선별은 이러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돕고, 교사가 아이를 위해 지원 방향을 세우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1) 사회정서행동 발달 선별의 개념

사회정서행동 발달 선별은 아이의 감정 조절, 또래 및 성인과의 관계, 행동에서 나타나는 발달 수준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영유아기의 정서와 행동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걱정스러워도 자연스러운 발달과 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질이나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단순한 관찰만으로는 지금이 ‘지켜볼 시점’인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 발달 선별에서도 사회정서 영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정서 표현이나 행동 조절처럼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세밀한 어려움을 파악하려면 사회정서행동 발달 선별을 함께 활용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아이의 상태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지원이 필요한 시기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정서행동 발달 선별 도구의 예

① 한국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선별도구(K-EISE)

한국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선별도구(K-EISE, Korean Early Identification of Social Emotional Development)는 출생부터 만 6세까지 아이의 **사회정서 및 행동 발달 전반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입니다. 이 도구로는 또래와 성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에 따른 탐색과 독립성, 행동 조절, 정서의 인식·표현·조절, 자신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 등 긍정적 자아 형성 같은 사회정서발달 영역을 폭넓게 평가합니다. 특히 아이의 강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상에 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발달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주의집중의 어려움, 섭식 행동 문제, 자폐 스펙트럼 관련 위험, 내재화·외현화 행동 문제와 같은 위험 신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행동상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질문지는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고, 선별 결과는 ‘**일반발달수준**’, ‘**주의관찰필요**’, ‘**추가평가권고**’ 세 단계로 제시됩니다. 또 양육자와 교사가 함께 작성할 수 있어, 아이의 사회정서행동 발달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④ 교사가 직접 하는 발달 선별, 단계별로 시작해보세요.

1단계: 발달 선별 도구 선택

이 자료에서는 세 가지 발달 선별 도구를 소개합니다. 전반적인 발달을 확인하는 도구로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활용되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와 일과 중심 발달 선별 도구인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가 있습니다. 또 정서와 사회적 행동 발달을 확인하는 ‘한국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선별도구(K-EISE)’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는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양육자가 작성하는 도구이므로, 교사는 양육자의 동의를 받아 결과지를 확인하거나 양육자 상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이의 발달에 변화가 있거나, 기관 차원에서 추가 발달 선별이 필요하다면, 교사용 K-SIE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발달 선별 범위 설정

기관의 목적에 따라 발달 선별 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① **보편적 선별** 학기 초에 모든 아이에게 실시해 반 전체의 발달을 확인합니다.
- ② **부분(개별) 선별** 발달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아이만 실시합니다.

3단계: 발달선별검사 실행

발달 선별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 ① **작성 전 준비** 사용 가이드를 숙지하거나 간단한 연수를 받으면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 ② **실시 시기** 아이가 기관에 적응하고 안정된 시점에 실시합니다.
- ③ **평소 모습 반영** 특별히 좋았던 날이나 힘들었던 날이 아닌, 평소 관찰된 일상적 모습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④ **교사 간 협력** 여러 교사가 함께 관찰했다면, 의견을 나누어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 ⑤ **양육자와 협력** 양육자가 함께 작성하는 도구는 사전 안내와 동의를 거쳐 가정에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반적 발달 선별		사회정서 행동
① K-DST	② K-SIED	③ K-E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s://www.nhis.or.kr •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 • 양육자가 작성 • 교사는 제출된 결과지 확인 또는 양육자 상담을 통해 결과 확인 	https://www.kicce.re.kr/main/board/ndex.do?menu_idx=305&manage_idx=172	https://csed.co.kr/social_emotional/step_intro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4단계: 결과 해석

대부분의 발달 선별 도구는 결과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명칭은 도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의 구분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며, 한국 영유아 발달체크도구(K-SIED), 한국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선별도구(K-EISE)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괄호 안에 병기하였습니다.

(1) 양호(양호군, 일반발달수준 등)

- ☑ 아이가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 특별한 염려가 없다면 추가적인 평가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정기적인 발달선별검사로 성장 과정을 꾸준히 지켜봐주시면 됩니다.

(2) 추적검사 요망(관심군, 주의관찰필요 등)

- ☑ 일부 영역에서 발달이 또래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 ☑ 응답한 항목 중 달성되지 않은 부분이나 염려되는 항목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 ☑ 해당 영역의 발달을 돕는 놀이나 상호작용을 일상에서 자주 시도해주세요.
- ☑ 약 2~3개월 이내 재검사를 진행하여 변화를 점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심화평가 권고(주의군, 추가평가권고 등)

- ☑ 발달 수준이 또래보다 낮게 나타나, 전문가의 정밀 평가가 권장됩니다.
- ☑ 발달 선별은 진단이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더 정확한 평가와 필요한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발달선별검사 결과를 양육자와 상담하고 다음 행동 계획

교사는 발달 선별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양육자에게 안내하고, 각 결과에 따라 가정과 기관에서 실천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음 표는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이며, 교실 상황과 양육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 다음 QR 코드에 제시된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별 안내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별 안내지		
① 양호	② 추적검사 요망	③ 심화평가 권고
		

발달선별검사 결과 설명을 위한 양육자 상담 가이드		
순서/포인트	내용에 대한 발화 예시	자료
1. 인사 및 아이스 브레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감을 줄이고 발달선별검사의 목적을 명확히 안내 • 선별이 진단과 다름을 강조하면서도 이 결과가 중요한 단서임을 놓치지 않도록 함 	① “안녕하세요. ○○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오늘은 아이의 발달선별검사 결과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② “이런 발달선별검사는 원에서 필요할 때 진행하기도 하고, 아이의 발달 흐름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에요. 병원에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처럼 아이의 발달을 한 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③ “이번 결과는 진단이 아니라, ‘지금 ○○이에게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할지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2. 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내하고, 양육자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함 • 판단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 	
(1)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언급 • 현재 양육 방식이 긍정적임을 제시 	① “○○이는 또래 수준에 잘 맞춰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②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③ “지금처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일상에서 아이와 상호작용 해주세요.”	발달선별검사 결과 ‘양호’ 안내지
(2) 추적검사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도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 • 불안을 줄이고, 양육자의 실천 동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 	① “○○이는 ○○ 영역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언어 영역)에서 또래보다 조금 느리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걱정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② “2~3개월 이후 다시 한번 발달 선별을 해서 결과 변화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놀이 제안 “(언어 활동)이 많이 포함된 놀이를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아요.”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안내지
(3) 심화평가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이 아님을 제시하여 걱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 • 조기 개입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명히 설명 	① “○○이는 ○○영역에서 또래보다 다소 느린 모습이 관찰되어, 아이의 발달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② “조기에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하게 개입하면, 아이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안내지

1. ‘조금 느린 발달’을 보이는 아이, 교사는 어떻게 도약할 수 있을까요?

발달선별검사 결과 설명을 위한 양육자 상담 가이드		
순서/포인트	내용에 대한 발화 예시	자료
3.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1) 양호	① “○○이는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평소처럼 아이와 따뜻하게 상호작용 하고,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주시면 좋습니다.” ② “이번 결과는 아이가 연령에 맞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꾸준히 관심을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③ “이 놀이 제안 자료에는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담겨 있어요. 참고하여 놀이해보세요.”	발달선별검사 결과 ‘양호’ 안내지
(2) 추적검사 요망	① “○○이가 현재 ○○영역에서 또래보다 살짝 느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해당 영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의미합니다.” ② “놀이활동은 어렵지 않게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연령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활용해보세요. 특히 ‘추적검사 요망’으로 나타난 영역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놀이하며 상호작용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추적검사 요망’ 안내지
(3) 심화평가 권고	① “○○이는 현재 ○○영역에서 또래에 비해 다소 느린 모습이 관찰되어, 더 정확히 이해하도록 전문적인 평가가 권장됩니다.” ② “현재 시점에서 전문가와 상담해 아이에게 적절한 개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실에서 사용하는 교육 목표나 계획서를 함께 공유해주시면, 저희 기관에서도 그 방향에 맞춰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안내지
4. 마무리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은 요약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빠르게 변화하며 발달하는데, 그 모습은 아이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교사는 일상에서 아이의 행동과 반응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작은 변화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달선별검사는 이러한 관찰을 구조화해주는 도구이며, 아이의 발달 상태를

더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발달선별검사 결과는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의 출발점이 되며, 교사가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원과 소통,

전문가 연계를 실천할 때 아이의 발달이 한층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록 3] (냉장고에 착!) 발달지연 위험 영유아 부모교육 프로그램(발체)

모든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교사용 참고 자료)-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 걸음 : 아이발달, 한 걸음 더



목차

냉장고에 탁!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별 안내지^①

‘양호’ 결과 안내지	03
‘추적검사 요망’ 결과 안내지	04
‘심화평가 권고’ 결과 안내지	05

냉장고에 탁!

0~2세 연령별 놀이 아이디어^②

0~11개월	06
12~23개월	08
24~35개월	10

냉장고에 탁!

3~5세 놀이 카드 6종^③

① 아이가 좋아하는 책 함께 보기	12
② 동물 수수께끼 놀이	13
③ 양말 공 던지기 놀이	14
④ 숫자 5 이야기 놀이	15
⑤ 얼굴 표정 식빵 만들기	16
⑥ DIY 퍼즐 놀이	17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아이디어로 카드 만들기

18

^①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양육자용) 4장 및 이에 연계된 교사용 참고자료 1장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허계형(2024). 아동복지시설 사회정서발달 위험 선별과 개입방안. 제1회 한국아동복지대회의 원문 자료를 수정·활용하였습니다.
^②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양육자용) 6장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③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양육자용) 7장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냉장고에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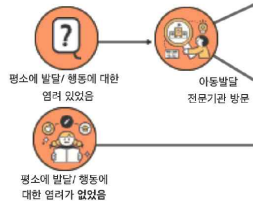
발달선별검사 결과 유형별 안내지

'추적검사 요망' 결과 안내지

발달선별 지원 가이드



발달 선별 결과 '추적검사 요망'



발달선별결과

'추적검사 요망' 수준

1. 발달 선별검사 결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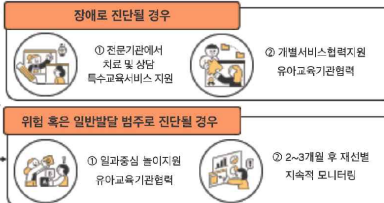
'추적검사 요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선별 결과에서 '추적검사 요망'에 해당하는 결과는 도구에 따라 '관심군' 혹은 '주의관찰필요' 등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권장되며, 이후 발달을 살펴 지원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2. 양육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양육자는 아이의 언어, 인지, 신체, 사회성, 정서 및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과 6개월 후 재선별하여 발달을 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아이 발달에 관한 상담과 평가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의원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놀이 프로그램, 상담 제공
아동발달 센터	아동상담 및 발달 전문가가 있는 기관 (예, 사회복지기관)에서 발달평가 및 상담 제공
바우처 서비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4. 아이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의 꾸준한 놀이활동은 아이의 발달을 돕고, 우려되는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세요.

6개월 후 발달 선별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발달 변화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영유아 발달 선별 시도에 따른 양육 첫걸음 :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냉장고에 착!]

냉장고에 착!

0~2세 연령별 놀이 아이디어

12~23개월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양육 첫걸음 : 아이 발달 한 걸음 더 [냉장고에 착!]

아침맞이

- 짧은 노래로 인사하기
- 기분 묻기
"OO야, 오늘 기분은 어때?"

기저귀 갈기

- 새 기저귀로 얼굴을 가렸다가
"까꿍!"
- 기저귀를 직접 버리는 미션 주기
"톡~ 버려줄래? 와, OO가 했네!"

먹기

- 즐겁게 식사 알리기
"밥 먹자! 오늘은 뭐 먹을까?"
- 눈높이에 맞춰 음식 알려주기
"당근이야. 한입에 쏙!"

놀이하기

- 동요에 맞춰 손뼉-점프-흔들기
- 산책하며 주변 함께 보기
"여기 빨간 꽃이 있네. 바람이 솔솔 부네."

목욕하기

- 욕조에 놀잇감 띄우기
"어디 가니, 오리야?"
- 몸의 이름을 불러주며 씻어주기
"발가락을 쓱쓱쓱~"

잠자리 들기

- 잘 시간 부드럽게 예고하기
"곧 잘 시간이야."
- 다정하게 토닥이며 자장가로 마무리하기

발달을 돕는 놀이 더하기

엄마·아빠에게 걸어오기 놀이

✓ 발달 영역
대근육·사회정서



✓ 놀이 방법
아이를 세워 두고, 두어 걸음 떨어져
손을 내밀어 걸어보도록 하기.

“힘차게 잘 걸네!”

✓ 한 걸음 더 Tip

- ✧ 거리를 늘리거나 방향을 바꾸어 걷게 하기
- ✧ 바닥에 있는 물건을 주워 오게 하기
- ✧ 잔디밭 등 불안정한 바닥에서도 걷게 하기

이름 부르기 놀이

✓ 발달 영역
언어·사회정서



✓ 놀이 방법
주변 방해가 적은 곳에 숨어 있다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기. 아이가 시선을 돌리며 반응하면,
나타나서 이름을 다시 부르며 웃고 안아주기

“OO야, 까꿍~ OO 이름을 들었구나!”

✓ 한 걸음 더 Tip

- ✧ 이름을 부르며 손 흔들기
- ✧ 이름을 부를 때 어깨를 살짝 쓰다듬어 반응 돕기
- ✧ 놀잇감이 있는 곳에서도 놀이하기

손가락 그림 놀이

✓ 발달 영역
소근육·사회정서



✓ 놀이 방법
무독성 물감을 손가락에 묻혀 종이 위에
자유롭게 찍고 문지르며 그림 그리게 하기

“OO야, 콕콕 찍으니까 동그라미가 되었네!”

✓ 한 걸음 더 Tip

- ✧ 손바닥과 발바닥도 찍어 다양한 감각 경험하기
- ✧ 색을 섞어 새로운 색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 ✧ 완성된 그림을 붙여 성취감 느끼게 돕기

냉장고에 착!

3~5세 놀이 카드 6종

③ 양말 공 던지기 놀이

깨끗한 양말을 돌돌 말아서 작은 공처럼 만들어요.
빈 빨래 바구니를 골대 삼아 공을 던져 넣으며 놀아보세요.
가족과 함께 응원하고, 성공했을 때 기쁨을 나누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우아, OO이가 던진 공이 정확하게 들어갔네! 정말 신나겠다.”

영역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인지, 사회정서

한 걸음 더 Tip

짧은 거리에서 시작하기

바구니를 아이 가까이에 두고, 던지지 않고 굴려 넣기를 합니다.

“속~ 하고 굴려 넣어볼까?”

단순한 동작 시도하기

팔을 크게 들어 던지기보다는,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밀듯이 던져봅니다.

양육자가 시범 보이기

양육자가 먼저 공을 던지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책연구소